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투리 공간의 활용 방안

Mini-lot Utilization Strategy for Improving Park
and Greenery Services in Suwon City

2013

연구진

연구책임

● 송원경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원

● 류수미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원

● 윤조흔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원

● 이지희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 약

수원시는 산림 등 자연환경 지역이 경기도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여 잠재적인 공원·녹지 서비스 여건이 부족하지만, 전체 면적대비 약 5%의 공원을 확보하고 도심에 다수의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로 평가받는다. 특히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공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원·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원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주목받는 것이 도심에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 공간이며, 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공원·녹지로 활용하는 것이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자투리 공간을 유형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도심의 공원·녹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250m 기준의 공원·녹지 서비스 분석을 통해 공원·녹지 소외지역을 파악하고, 수원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서비스 소외지역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공원·녹지는 수원시 공원과 함께 현재 시민들이 공원과 유사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산림 녹지, 하천 녹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 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공원·녹지 서비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공원·녹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지역 및 전수 조사를 통해 자투리땅을 파악하였다. 현장조사를 토대로 자투리땅에 대한 유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원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투리땅 녹화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원·녹지 서비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원시 전체의 약 19.2%가 서비스 소외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외지역의 토지피복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구 중에서는 권선구, 동 중에서는 정자1동, 고등동, 매산동, 평동, 세

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매탄3동, 태장동이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서비스 소외지역인 권선구의 4개 동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자투리 공간을 파악하고 50개 대상지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였다. 자투리 공간은 면적 10㎡~3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로-건물 사이에 위치한 자투리 공간이 가장 많았으며 형상은 가장형과 삼각형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투리 공간 대부분이 현재 화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유형과는 크게 상관없이 획일적인 이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자투리 공간 녹화사례를 통해 수원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녹화전략을 도출하였다. 한평공원, 도시 생생 프로젝트, 서울시 생활 공원, 서울시 한뼘 동네 공원, 휴메트로 커뮤니티 파크,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성당 등의 사례를 통해 최근 자투리 공간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공원 정책의 흐름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주민과 기업, 행정, 시민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녹화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 대상지에 분포하고 있는 자투리 공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총 6개의 녹화유형(자투리 공원형, 텃밭형, 경관조성형, 비오톱조성형, 주차장조성형, 화단형)을 제시하였다.

넷째, 제안된 자투리 공간 녹화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원시 자투리 공간 녹화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유형별 사업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원시에서는 시민들과 진행할 수 있는 녹화사업을 추진하되,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투리 공간 활용 프로젝트”, “자투리 공간 공모 사업”과 같은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 본 연구 결과가 수원시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투리 공간 녹화 사업을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르네상스 사업, 마을계획단 등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은 마을르네상스 사업과 동일한 대상지를 공유하지만 사업 성격, 주체 등이 달라

계획, 관리 등에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마을르네상스 사업과 결합하여 마을 주민들이 마을 내 존재하지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간, 초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을 직접 찾아내는 것부터, 발견된 자투리 공간을 계획, 시공, 관리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주제어 : 자투리 공간, 공원 서비스, 주민참여, 녹화전략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절차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수행절차	5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7
제1절 수원시의 공원·녹지	9
1. 근린공원	10
2. 어린이공원	11
3. 녹지	11
제2절 공원·녹지 서비스의 개념 및 분석 방법	14
1. 도시공원의 입지기준	14
2. 공원·녹지 서비스 연구	16
제3절 공원·녹지 서비스 분석	18

1. 행정구역별 공원·녹지 분포	18
2. 공원·녹지 서비스	21
제3장 자투리 공간 유형 분석	27
제1절 자투리 공간의 이론적 고찰	29
1. 자투리 공간의 개념	29
2. 자투리 공간의 형성 요인	33
3. 자투리 공간의 유형	35
제2절 수원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37
1. 사업 개요	37
2. 사업 시행 현황	37
제3절 자투리 공간 조사 및 유형 분석	44
1. 조사 대상지 선정	44
2. 조사 및 유형 분석	45
제4장 자투리 공간 녹화전략	57
제1절 자투리 공간 녹화사례	59
1. 자투리 공간 녹화 개요	59
2. 한평공원	60
3. 도시 생생 프로젝트	66
4. 서울시 생활 공원	69
5. 서울시 한뼘 동네 공원	69
6. 기타 사례	70
7. 종합	74
제2절 자투리 공간 녹화전략	76
1. 공간 유형별 녹화전략	76
2. 녹화사업 추진 방안	85
3. 지속가능한 자투리 공간 관리	91

제5장 결론 및 제언	99
제1절 결론	101
제2절 제언	103
참고문헌	109
영문요약(Abstract)	115

표 목 차

<표 2-1> 구별 어린이공원 지정 현황	11
<표 2-2> 수원시 보호수 현황	13
<표 2-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15
<표 3-1> 우리 동네 만들기 주요 추진사항 및 일정	39
<표 3-2> 구동별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완료 현황	43
<표 3-3> 현장조사 위치 및 현황 정보	46
<표 3-4> 자투리 공간 형상 분류 기준표	53
<표 4-1> 자투리 공간 녹화 사례 정리	75
<표 4-2> 자투리 공간 녹화를 위한 고려 요소	78
<표 4-3> 사례별 추진방안	86
<표 4-4> 자투리 공간 유형별 사업 지원방안	89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6
<그림 2-1> 수원시 공원현황 (푸른녹지사업소 https://greencity.suwon.go.kr/)	9
<그림 2-2> 수원시 산림	18
<그림 2-3> 수원시 하천(지방하천)	18
<그림 2-4> 수원시 공원 현황(조성중인 공원 포함)	19
<그림 2-5> 수원시 공원·녹지 분포 현황	19
<그림 2-6> 수원시 행정구역별 공원·녹지비율	21
<그림 2-7>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권역 분석(500m 기준)	22
<그림 2-8>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권역 분석(250m 기준)	23
<그림 2-9> 수원시 시가화지역	24
<그림 2-10> 시가화지역 중 서비스 권역(250m 기준)	24
<그림 2-11> 동 면적 기준 서비스 비율	24
<그림 2-12> 시가화지역 기준 서비스 비율(250m 기준)	24
<그림 2-13> 공원·녹지 서비스 권역 종합(250m 기준)	25
<그림 3-1> 유희공간의 대표적인 사례	32
<그림 3-2> 자투리 공간의 형성 요인	34
<그림 3-3> 자투리 공간의 한 형태인 비활용 공간 예시	35
<그림 3-4> 자투리 공간의 한 형태인 기능이 잘 구현되지 못하는 공간 예시	36
<그림 3-5> 자투리땅 전수조사 전경	39
<그림 3-6> 주민과 이용협약서 체결	39
<그림 3-7> 우리동네 마을 만들기 추진 결과 (e-수원뉴스 http://news.suwon.ne.kr)	40
<그림 3-8> 수원시 구별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완료 현황	41
<그림 3-9> 수원시 구·동별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완료 현황	42
<그림 3-10> 자투리 공간의 현재 이용 현황	49

<그림 3-11> 자투리 공간 면적별 분포 현황	50
<그림 3-12> 화단으로 조성된 자투리땅	50
<그림 3-13> 텃밭으로 조성된 자투리땅	51
<그림 3-14> 주민쉼터로 조성된 자투리땅	51
<그림 3-15> 주위 상업시설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자투리땅	51
<그림 3-16> 위치에 따른 자투리 공간 구분	52
<그림 3-17> 형상에 따른 자투리 공간 구분	54
<그림 3-18> 자투리 공간 형상별 화단 조성 현황	55
<그림 4-1> 2013년 기준 한평공원 조성 현황	61
<그림 4-2> 체부동 빨간 벽돌 한평공원	62
<그림 4-3> 창신동 한뫼 한뫼 한평공원	62
<그림 4-4> 수원시 영통구 도롱뇽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모습 (걸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 연대 http://www.dosi.or.kr)	63
<그림 4-5> 도롱뇽 놀이터 조성 전/후 모습	64
<그림 4-6> 놀이터 홍보 모습	64
<그림 4-7> 둥글 언덕 놀이터 조성 전/후 모습	65
<그림 4-8> 서울시 자투리 공간 공모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	66
<그림 4-9> 행당역에 설치된 우수작품	67
<그림 4-10>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수작품	67
<그림 4-11> 동작구 프로젝트 전/후 대상지 전경 (라펜트 http://www.lafent.com)	68
<그림 4-12> 강동구 프로젝트 전/후 대상지 전경 (라펜트 http://www.lafent.com)	68
<그림 4-13> 서울시 강서구 평고개공원 사업 전/후 대상지 전경	69
<그림 4-14> 서울 서대문구 안산연희쉼터	70
<그림 4-15> 서울 은평구 마을마당	70
<그림 4-16> 부산시 휴메트로 커뮤니티 파크 3호점 사업 전/후 대상지 전경	71
<그림 4-17> 북적북적 담장공원 마스터플랜	73

<그림 4-18> 북적북적 담장공원 현황사진	73
<그림 4-19>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성당에 조성된 주민 휴식 공간	74
<그림 4-20> 현장조사 대상지점	77
<그림 4-21> 공간 유형별 녹화전략 제시(안)	81
<그림 4-22> 세류2동 566-4 대상지 현황(2013. 11. 25)	82
<그림 4-23> 세류2동 1021-4 대상지 현황(2013. 11. 25)	83
<그림 4-24> 세류3동 142-4 대상지 현황(2013. 11. 26)	84
<그림 4-25> 세류동 264-16 옆 대상지 현황(2013. 11. 26)	84
<그림 4-26> 세류3동 838-2번지 대상지 현황(2013. 11. 26)	85
<그림 4-27> 수원시 자투리 공간 녹화 추진 방안	88
<그림 4-28> 한평공원 1호 원서동 빨래골 쉼터 (라펜트 http://www.lafent.com)	91
<그림 4-29> 심지관수 저관리형 화분 사례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95
<그림 4-30> 2013년 텃밭농사달력(경기도농업기술원, 2012)	9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집단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거나 둘째, 공유된 공간을 통해 서로 교류가 가능한 경우이다. 두 측면이 별도로 작용하여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 이는 커뮤니티에서 형성되는 인간적인 교류가 물리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물리적인 차원을 형성하는 것이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의 커뮤니티 기능을 증대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커뮤니티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를 형성시키도록 도와주거나 커뮤니티가 가능한 물리적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자연스럽게 도심의 공원·녹지 조성 전략과 연결될 수 있다.

수원시 주민들은 편안하게 쉬거나 친구들 또는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주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소공원, 쌈지공원 등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가 편할 것이다. 그러나 수원시 구도심 같은 경우 다세대 주택이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무 그늘, 벤치가 없어 이런 소소한 일상을 영유하기 힘들다. 따라서 수원시의 공원 정책은 구도심과 같이 걸어서 쉽게 도달 가능한 공원이나 녹지가 없는 지역 주민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초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프라는 도시의 역사, 구조,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초적인 생활권 공원·녹지 공간은 최소의 요구량이 있다. 1인당 최소한으로 요구되

는 공원 면적을 비교해보면 전 세계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에 비해 부족한 공원 녹지 면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원시 1인당 공원면적은 3.4m²/인으로서 우리나라 평균(7.6m²/인), 영국 런던(24.2m²/인)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 평가된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녹지와 도심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소규모 녹지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지만, 상대적으로 녹지 면적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공원·녹지조성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생활권 공원의 개념으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을 공급하는 정부 주도형 전략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시민참여를 고려한 민간 주도형 전략이 중요한 공원 관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도시계획상 도시공원 미조성 문제는 실제로 도시계획상 제공되는 공원·녹지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구도심과 같은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공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지자체 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을 재검토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공원 녹지 확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수원시에 존재하는 공원·녹지 소외지역을 파악하고 생활권 공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투리 공간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공원·녹화 조성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수원시에 분포하고 있는 공원·녹지 서비스 권역을 분석하여 공원·녹지 소외지역을 확인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자투리 공간의 유형을 구분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녹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이 쾌적하게 공원·녹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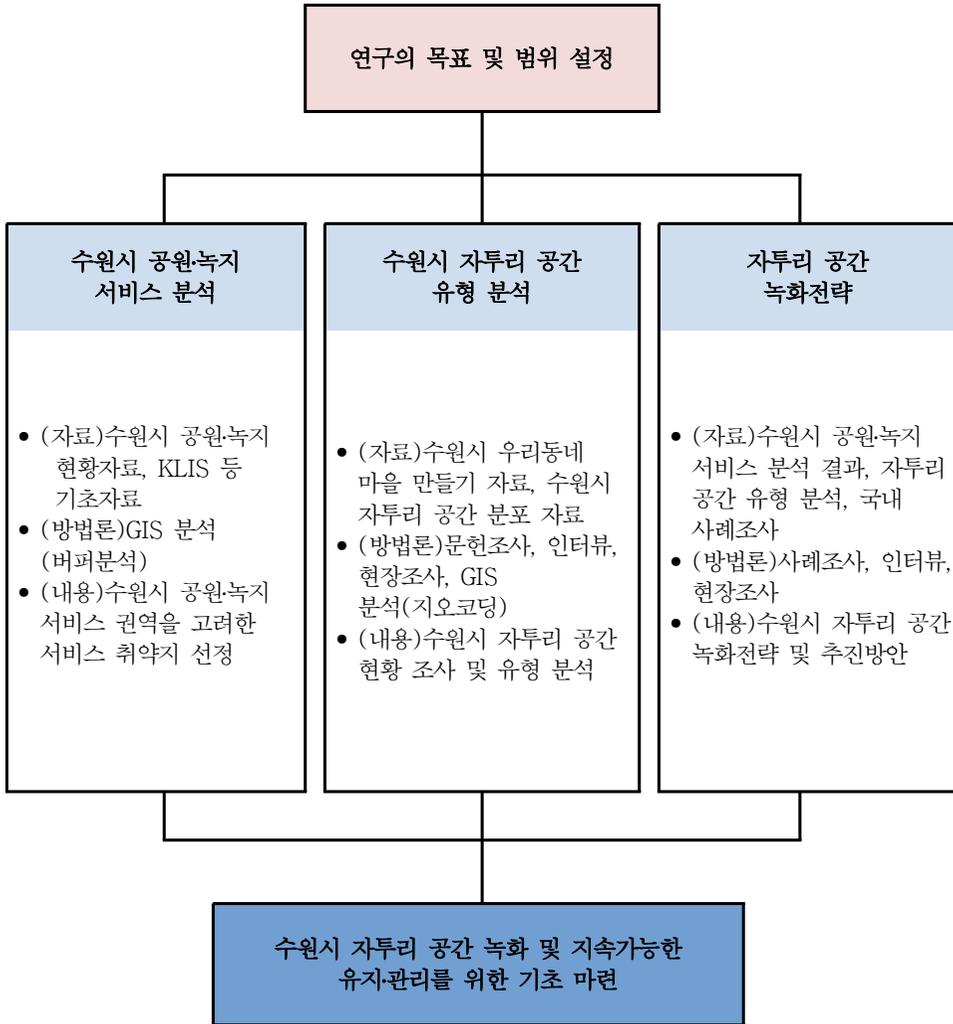
1. 연구의 범위

수원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도심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심 구조 및 역사에 따라 자투리 공간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범위 또한 매우 넓으므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여 도심 자투리 공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현재 조성되어있거나 조성 중인 공원 및 자연녹지 등 공원·녹지공간을 확인하고 이들의 서비스권역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도심 자투리 공간을 파악하였다. 특히 중점 조사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수원시 40개 동을 대상으로 도시쇠퇴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자투리 공간 녹화 전략과 연계하였다.

수원시는 2013년 6월 이후 방치된 자투리땅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제출된 조성자료를 대상으로 수원시 전체의 자투리땅 조사지역을 파악하고 이들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중 공원·녹지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투리 공간 녹화전략을 수립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수원시의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GIS를 활용하여 공원·녹지 서비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수원시에서 실시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대상지 중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자투리 공간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자투리 공간을 효과적으로 녹화하기 위해 국내 사례조사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업을 고찰하여 본 연구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녹화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림 1-1〉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제2장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제1절 수원시의 공원·녹지

제2절 공원·녹지 서비스의 개념 및 분석 방법

제3절 공원·녹지 서비스 분석

제2장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제1절 수원시의 공원·녹지

수원시는 화성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형 도시구조를 보유한 만큼 풍부한 역사적 공간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수원시에는 총 241개 공원(미인수 공원인 망포공원 포함)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 근린공원은 46개, 어린이공원은 173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광고신도시에 22개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순차적으로 수원시에 인수될 예정이다.



<그림 2-1>. 수원시 공원현황(푸른녹지사업소 <https://greencity.suwon.go.kr/>)

「2020년 수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9년 4월 기준으로 수원 시 내에는 총 371개(구 도시자연공원 폐지, 근린공원 76개, 어린이공원 214개, 소공원 39개, 역사공원 3개, 체육공원 6개, 문화공원 2개, 수변공원 31개)로 약 14.3km²가 지정되어 있으며, 공원 총면적은 도시행정구역 121.1km²에 대해 1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류별 면적으로 보면 근린공원이 11,583,227.7m², 어린이공원 547,489.3m², 소공원 62,046.0m², 역사공원 134,965.8m², 체육공원 183,358.2m², 문화공원 10,471.0m², 수변공원 1,815,333.0m²를 차지하고 있다. 기 결정된 도시공원 중 2009년 4월까지 미집행된 공원은 총 161개소, 10.5km²로 면적대비 73.4%가 미집행 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현재 지속적으로 미집행 공원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나, 신도시 이외 지역은 토지매입 등의 어려움 등을 문제로 공원 결정지역이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존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 근린공원

「2020년 수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공원 1개소당 근린공원 평균 지정면적은 152,411m²이며, 1개소 당 평균 조성면적은 93,395m²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조성되었거나 조성되고 있는 대형 근린공원으로는 지지대공원과 영흥공원이 있는데, 이들은 도시외곽에 위치하며 산림을 포함하고 있는 자연공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원시 근린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영통생활권 18개소(1.1km²), 북수원생활권 13개소(5.2km²), 광고생활권 10개소(1.5km²), 화성생활권 10개소(1.8km²), 서수원생활권 25개소(2.0km²)로 서수원생활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면적은 지지대 공원의 영향으로 북수원생활권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그림 2-1). 최근 조성된 광고호수공원은 기존 산림과 저수지를 보존하여, 다층의 수변경관 및 테마를 가진 205만m²의 자연형 호수공원이다. 이는 일산호수공원의 두 배 면적이다.

2. 어린이공원

「2020년 수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수원시의 어린이공원은 총 214개소, 면적 547,489.3㎡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개소 당 조성면적은 2,552㎡에 달한다. 어린이공원은 영통 52개소(154,019.5㎡), 북수원 33개소(90,368.3㎡), 광교 19개소(45,677.1㎡), 화성 66개소(145,699.0㎡), 서수원 44개소(111,554.4㎡)로 공원의 개소 수 및 면적은 권선구에 편중되어 분포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권선구의 면적이 42.3km²로 타 구에 비해 넓기 때문이지, 비율 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린이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그림 2-1).

2012년 12월 기준으로 수원시에는 총 219개의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168개 공원이 조성완료, 26개 공원이 조성중이며 25개 공원이 미조성된 상황이다.

〈표 2-1〉 구별 어린이공원 지정 현황

구분	합계		조성완료		조성중		미조성		화장실 (개소)	경로당 (개소)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219	557,796.8	168	435,641.7	26	62,722.1	25	59,530.1	24	32
장안구	45	119,723.5	38	96,037.5	4	7,037	3	16,649	3	9
권선구	81	192,771.2	57	128,875.2	12	37,270	12	26,626	15	8
팔달구	38	88,082.7	31	77,123.6	1	595	6	10,364.1	4	7
영통구	55	157,219.4	42	133,605.4	9	17,820.1	4	5,891	2	8

푸른녹지사업소 <https://greencity.suwon.go.kr/>

3. 녹지

시설녹지는 도로변 및 공업단지 주변의 주요시설 격리 및 보존을 목적으로 주로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다. 「2020년 수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기준

으로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시설은 완충녹지 478개소(1,465,077.2㎡), 경관녹지 49개소(132,058.9㎡), 연결녹지 9개소(13,294.8㎡)로써 총 536개소 1,610,430.9㎡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완충녹지는 면적기준 미집행률이 66%로서 조성률이 낮으며, 경관녹지는 집행된 면적 기준으로 개소당 평균 3,356㎡가 지정되어 있다.

수원시에는 총 20개 보호수가 존재하며, 보호수는 수원시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을 활용하여 공원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확인해본 결과 총 9개 보호수 주변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수원시, 2012).

수원시의 대표적인 산림은 광교산, 칠보산, 청명산이다. 광교산은 해발 582m의 수원시 최대의 산림으로서 총35개의 등산로 코스를 보유하고 있다. 칠보산은 권선구 금곡동, 당수동, 호매실동에 걸쳐있는 해발 234m의 산림으로서 8개 코스의 15.3km 등산로를 보유하고 있다. 청명산은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해발 192m 산림으로서 용인시와 인접하여 4코스 4.7km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는 수원시 동남부 최대의 산림이다.

〈표 2-2〉 수원시 보호수 현황

구분	지정번호	수종	수령(년)	소재지	비고
1	경기-수원-1	향나무	720	권선구 탑동 873-3	소공원 조성가능
2	경기-수원-2	은행나무	420	권선구 권선동 1134-1	
3	경기-수원-3	느티나무	500	장안구 상광교동 130	
4	경기-수원-4	은행나무	420	장안구 율전동 16	
5	경기-수원-5	느티나무	470	장안구 파장동 411	소공원 조성가능
6	경기-수원-6	느티나무	370	팔달구 신평동 257	
7	경기-수원-8	느티나무	370	장안구 하광교동 440-7	소공원 조성가능
8	경기-수원-9	느티나무(3주)	360, 320, 320	장안구 파장동 515	소공원 조성가능
9	경기-수원-10	느티나무	520	팔달구 지동 465	소공원 조성가능
10	경기-수원-11	느티나무	700	영통구 영통동 1047-3	소공원 조성가능
11	경기-수원-12	느티나무	420	영통구 매탄동 205-32	
12	경기-수원-13	느티나무	370	팔달구 매향동 13-1	
13	경기-수원-14	느티나무(2주)	370, 340	팔달구 남창동 6-2	
14	경기-수원-15	느티나무	370	영통구 이의동 399-1	소공원 조성가능
15	경기-수원-16	느티나무	470	팔달구 지동 231-3	
16	경기-수원-17	느티나무(2주)	320, 270	영통구 매탄동 866-25	
17	경기-수원-18	느티나무	420	영통구 영통동 1092	소공원 조성가능
18	경기-수원-20	소나무	200	권선구 호매실동 629-2	소공원 조성가능
19	경기-수원-21	느티나무	150	권선구 세류1동 225-148	
20	경기-수원-22	향나무	800	팔달구 우만동 248	

제2절 공원·녹지 서비스의 개념 및 분석 방법

1. 도시공원의 입지기준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된 법정용어로서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 이처럼 도시공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시설로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과 같은 도시기반시설로 이해하거나 교육 및 문화, 복지시설 등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에 포함되기도 한다(조경진, 2010). 이러한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은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IFPRA(International Federation of Parks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영국국가건축위원회(CAB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등은 도시공원이 환경·생태적 서비스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그린인프라 서비스로 기능함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휴식과 건강, 정서함양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및 개선, 어메니티(amenity) 증진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 공간으로서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 및 도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배민기와 김유리, 2013).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원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활권공원에 대한 유치거리를 설정하여 도시민의 공원 서비스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도보권 근린공원은 1,000m 이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500m 이하, 어린이공원은 250m 기준의 유치거리를 설정한 상황이다. 또한, 하나의 도시에서 도시공원 확보기준은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신도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의한 공원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구시가지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의 도시공원 관련 제도적 기준은

거시적이고 총계적인 측면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배민기와 김유리, 201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도시공원 입지 연구는 자연스럽게 공원·녹지 서비스 연구 및 입지 형평성 연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표 2-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 모	
생활권 공원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미터 이하	1천 5백제곱미터 이상	
	근린 공원	근린생활권	제한 없음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도보권	제한 없음	1천미터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권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광역권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만제곱미터 이상
주 제 공 원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체육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기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2. 공원·녹지 서비스 연구

근린공원 계획에서 공원·녹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인구당 필요 면적과 최대 이용거리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어왔다.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이론에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400m 주변에 공원, 놀이터 등의 시설이 입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 여가공원협회는 공원 최대 이용 가능한 거리를 0.5마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공원·녹지 서비스는 공원·녹지 제공 면적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공원 이용 가능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6월 미국의 비영리단체 The Trust for Public Land(TPL)는 최고의 공원으로 미네아폴리스를 선정했다. 공원으로 선정하는데 TPL이 지표로 삼은 3가지 중 한 가지가 바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는지 여부'였다. 여기서 걸어서 10분이란 주민이 집밖에 나서서 약 0.5마일 거리 안에 도시공원 입구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위를 차지한 미네아폴리스는 시민의 94%가 10분 거리에 공원을 만날 수 있고, 2위인 뉴욕은 시민 96%가 10분 거리에서 공원에 접근할 수 있다¹⁾. 방법론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800m 거리의 접근성 기준에서 수원시는 현재 조성 중인 공원을 포함하여 전체 면적의 약 69%가 10분 이내의 공원 서비스 가능 지역인 것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송원경, 2013).

일반적으로 접근성 분석은 수요지와 공급지 간의 공간적 접근 가능성을 GIS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시화하는 공간분석으로 진행된다(Higgs, 2004). 이제까지 해외에서의 접근성 연구는 보건, 의료,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공평한 서비스를 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공공서비스 시설입지분석을 위해 접근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공원·녹지 분야로 한정하여 접근성 분석 연구를 고찰한 결과 접근성 측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 공원·녹지까지의 거리를 기본으로 한 접근성 측정 방법이다. 거리를 통해 접근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는 버퍼 분석(buffer analysis)을 이용하거나(안동만 등, 1991), 실제 사람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도 연구된 바 있다(오규

1) <http://parkscore.tpl.org/>

식과 정승현, 2005). 이러한 방식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도시공원의 입지기준에 충실한 접근성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실제 보행자가 인식하고 있는 장애요소를 고려한 접근성 분석 방법이다. 이는 방향회전, 도로 및 철도와 같은 물리적인 장애물 등을 이용하여 접근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성현찬, 1998; 성현찬과 신지영, 2005). 이는 개별 공원 유치권 내에서 실제 주민이 인식하는 장애요소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다양한 관련 이론에 기반을 둔 접근성 모형을 통한 측정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중력모형을 적용한 모형은 공원의 면적, 내부 프로그램 풍부도 등을 매력요인으로, 지역의 인구 등 수요지역의 수요량을 가중치로 활용하여 거리에 따른 공간상호작용을 적용한 방식이다(홍일영, 2013). 이 외에도 도시 및 건축분야에서 도로망 및 도시구조의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여 접근성을 분석하는 방식인 공간구문론(Space Syntax) 등의 기하학적 연결구조에 기초한 접근성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김정규와 김유일, 2012). 이상의 방법 이외에도 행정구역별 접근성을 객관화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컨테이너 방식이 있다. 이 방법은 일정 분석지역 내에 포함된 공원의 수와 면적, 밀도 등을 계산하여 그 지역의 접근성을 측정한다. 이 방식은 분석 단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이상일, 1999), 동일한 단위 지역을 하나의 결과로 계산하므로 분석의 단위 설정이 분석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방법론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거리를 기초로 연결성을 측정할 경우 분석 방법이 명확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기는 쉽지만 보행자의 이동특성을 명확히 분석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행자가 인식하는 장애요인 등 심리적인 접근성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은 단순 거리 기반의 분석에 비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심리적인 단절 수준을 객관화하기는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모형 기반의 접근성 분석은 향후 장기적으로 자료가 축적될 경우 앞의 두 가지 측정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해 객관화된 결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원·녹지 접근성 분석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거리 기반의 연결성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공원·녹지 서비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절 공원·녹지 서비스 분석

1. 행정구역별 공원·녹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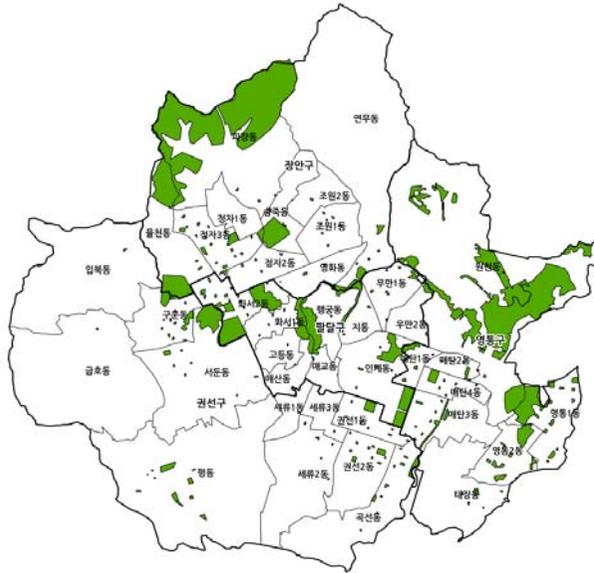
공원·녹지 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공원으로서 주민이 이용 가능한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녹지로서 생활권 공원인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소공원, 그 외에 수원시에서 공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광교산, 칠보산, 여기산 등의 산림 녹지, 황구지천, 수원천, 원천리천, 서호천 등 수원시 하천을 포함시켰다. 생활권 공원은 현재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공원만을 포함시켰으며 산림 녹지는 환경부 2011년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기준으로 산림인 지역을 모두 포함하였다. 하천은 WAMIS에서 제공하는 하천현황도 자료와 2009년 수원시 도시생태현황도를 통해 구축된 수원시 하천지도를 위성영상을 통해 최신 자료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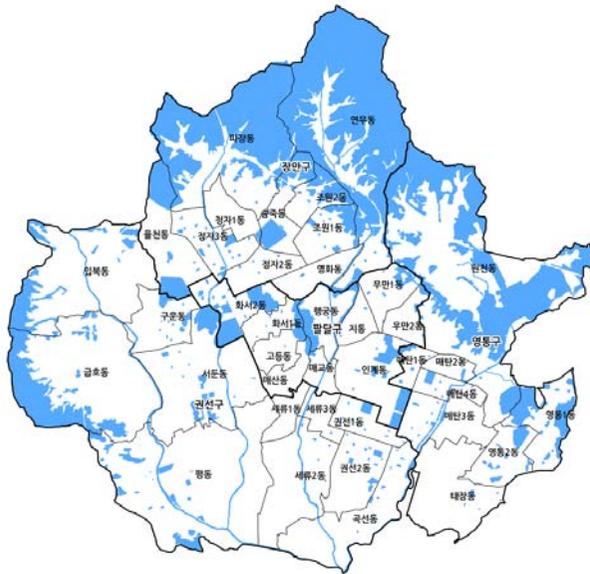
〈그림 2-2〉 수원시 산림



〈그림 2-3〉 수원시 하천(지방하천)



〈그림 2-4〉 수원시 공원 현황(조성중인 공원 포함)



〈그림 2-5〉 수원시 공원·녹지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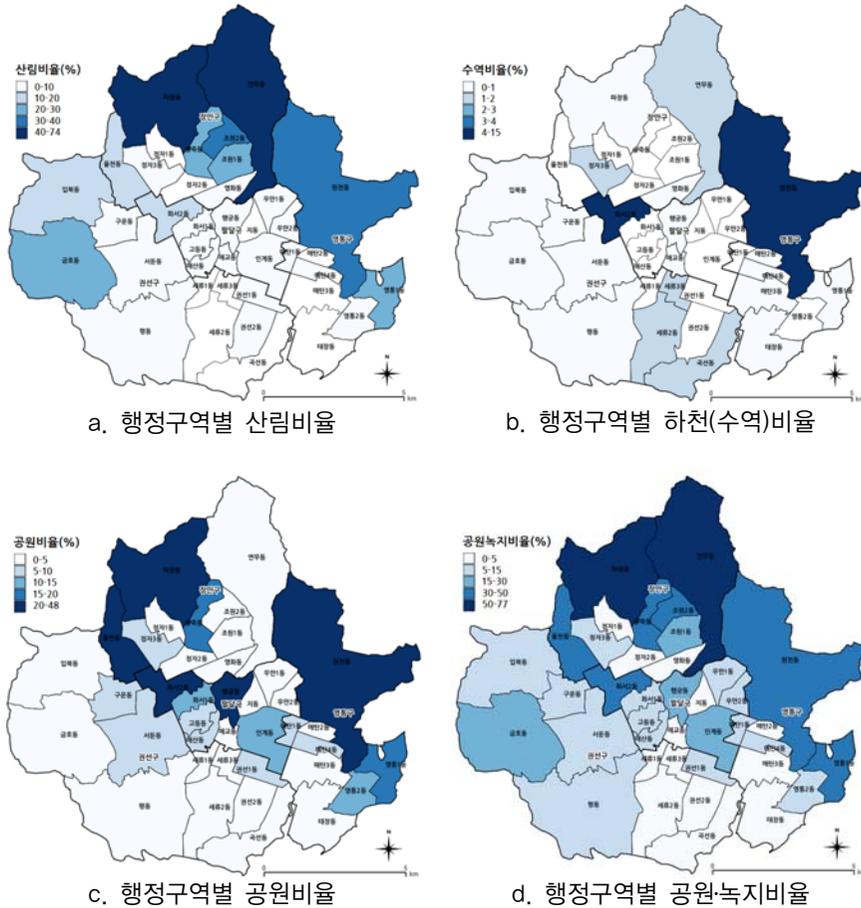
현재 수원시에 분포하고 있는 공원면적을 행정구역별 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원은 현재 조성중인 지시대공원의 영향으로 과장동이 행정구역 면적의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호공원, 숙지공원이 포함된 화서2동이 36%의 공원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일월공원이 포함된 율전동이 28%, 팔달공원이 포함된 행궁이 24%, 광고호수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원천동이 23%로 높은 공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 대형 근린공원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조원2동, 세류1,2,3동, 입북동, 금호동 등은 공원면적 비율이 1%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림비율은 광고산이 포함되어 있는 연무동이 전체 행정구역 대비 74%, 과장동이 57%, 조원2동이 40%, 원천동이 33%, 송죽동이 27%로 높게 분석되었다. 이 외에도 청명산이 포함되어 있는 영통1동이 27%, 칠보산이 포함되어 있는 금호동과 입북동 역시 각각 26%, 14%의 높은 산림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곡선동과 메탄2,3동, 세류1,2,3동, 정자1,2동, 지동, 태장동은 산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행정동인 것으로 확인되어 자연형 녹지가 부족한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하천은 다른 공원·녹지에 비해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큰 유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호가 포함된 화서2동이 행정구역 면적 대비 가장 높은 15%의 수역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가 포함된 광고호수공원의 영향으로 원천동이 5%의 수역 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도 저수지 및 수원시의 주요 하천인 황구지천, 수원천, 원천리천, 서호천이 관통하고 있는 세류2동, 곡선동, 연무동, 정자3동 등이 수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공원·녹지를 모두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연무동이 광고산의 영향으로 전체 면적대비 77%의 공원·녹지를 보유하여 수원시에서 가장 공원·녹지가 풍부한 동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과장동(64%), 원천동 및 송죽동(45%), 조원2동(40%), 화서2동(37%), 영통1동(34%), 율전동(32%) 등이 30% 이상의 공원·녹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원·녹지 비율이 낮은 동은 순서대로 세류1동, 정자2동, 태장동, 지동, 세류3동, 세류2동, 정자1동, 영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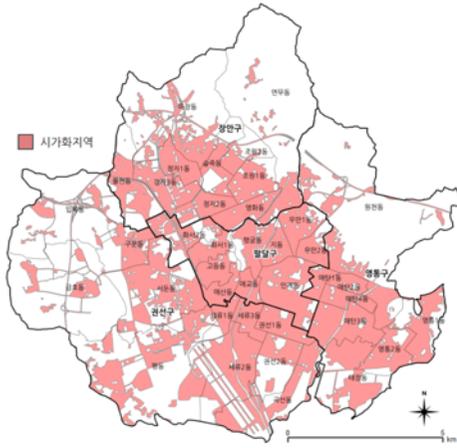
매교동, 권선2동, 매탄3동, 곡선동 등으로서 이러한 동은 현재 수준에서 공원·녹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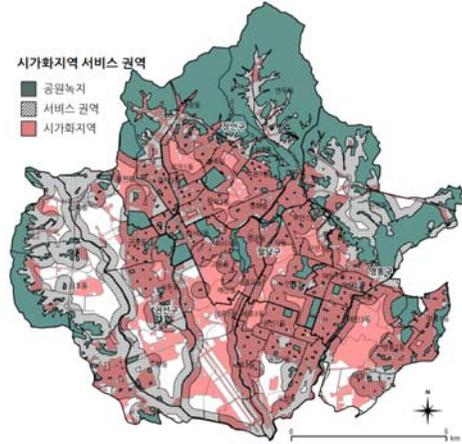
〈그림 2-6〉 수원시 행정구역별 공원·녹지비율

2. 공원·녹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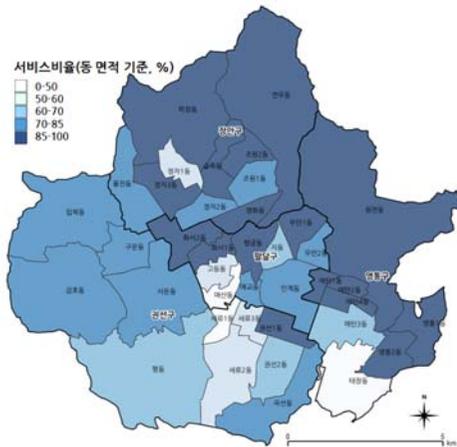
공원·녹지 서비스 분석은 임계거리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의 접근성을 기반으로 임계거리를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유치기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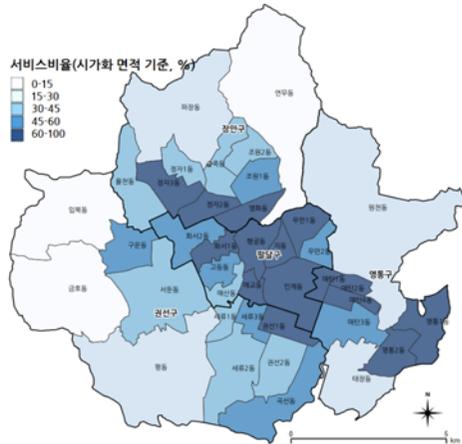
〈그림 2-9〉 수원시 시가화지역



〈그림 2-10〉 시가화지역 중 서비스 권역(250m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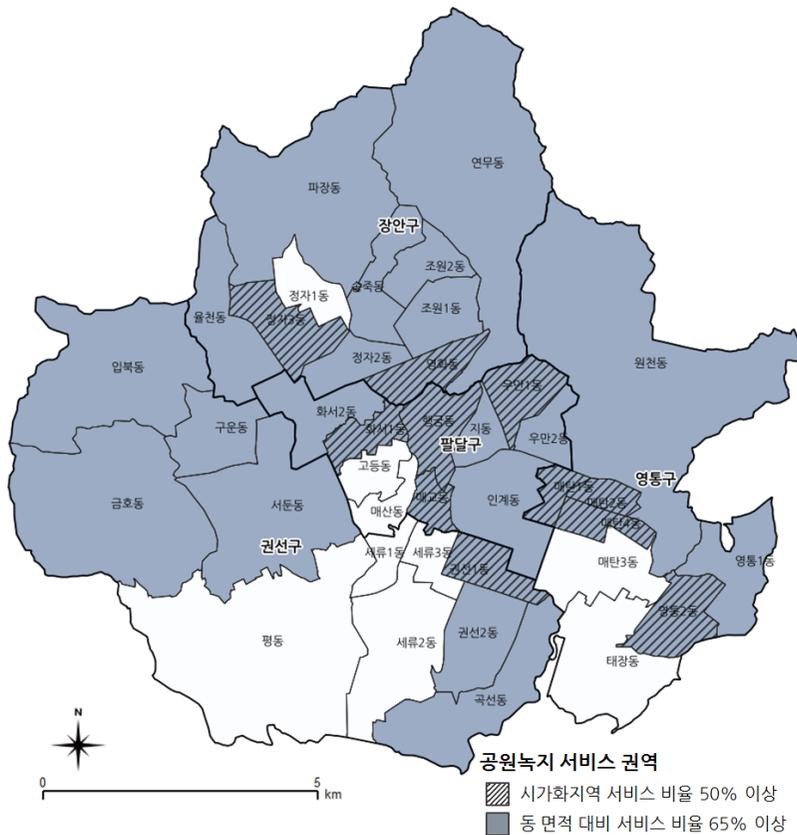
〈그림 2-11〉 동 면적 기준 서비스 비율 (250m 기준)



〈그림 2-12〉 시가화지역 기준 서비스 비율(250m 기준)

이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가화지역에 대한 공원·녹지 미서비스 지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는 2011년 중분류 토지피복 지도 기준으로 전체면적의 44.4%가 시가화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림과 서수원 지역 황구지천 인근의 농경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심지역은 시가화지역이라 할 수 있다. 세류3동, 매탄3동, 매교동, 지동, 매탄 1동, 매산동 등이 가장 시가화 비율이 높은 동으로 확인되었다. 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공원·녹지 서비스 비율을 계산했을 때, 매탄1동(94%), 매탄2동과 권 선1동(90%)은 시가화지역에 대한 공원·녹지 서비스 비율이 가장 높은 동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는 반대로 금호동(6%), 입북동(9%), 연무동(10%), 원천동 (16%), 태장동(20%), 평동과 과장동(24%) 등은 가장 낮은 공원·녹지 서비스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조원2동(31%), 세류1동 (33%), 매산동(35%), 율천동(36%), 송죽동(39%), 권선2동(40%) 등이 40% 이하의 낮은 공원·녹지 서비스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 2-13〉 공원·녹지 서비스 권역 종합(250m 기준)

서비스 면적 비율을 전체 행정구역 및 시가화지역 면적 대비 2/3로 설정했을 때 행정구역 비율에 따른 공원·녹지 서비스 취약지역은 그림 2-13의 흰색 부분이며, 시가화지역 비율에 따른 공원·녹지 서비스 취약지역은 빗금 이외의 지역이다. 두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상대적으로 팔달구는 고등동과 매산동을 제외하고는 공원·녹지 서비스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별로 비교할 때 장안구는 정자1동 한 지역, 영통구는 매탄3동과 태장동 두 지역, 권선구는 세류1,2,3동과 평동 등 총 4지역이 공원·녹지 서비스 취약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권선구가 공원·녹지 서비스에 취약한 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인프라에 의해 공원·녹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소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기준에서 근린공원 등과 같은 공원·녹지를 확보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간적인 제한, 예산의 한계 등으로 단중기에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두 번째, 생활권에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투리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권 공원·녹지 전략이 공원·녹지 서비스 증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제3장

자투리 공간 유형 분석

제1절 자투리 공간의 이론적 고찰

제2절 수원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제3절 자투리 공간 조사 및 유형 분석

제3장 자투리 공간 유형 분석

제1절 자투리 공간의 이론적 고찰

1. 자투리 공간의 개념

도시 속의 모든 공간들은 도시계획 하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공간에 대한 방치와 방기에 의해 생성되기도 한다. 크고 작은 공원이나 광장, 도로, 주거단지, 산업 단지 등이 도시계획의 결과로 만들어져 활용되는 공간이라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자투리 공간, 건축물의 입면, 옥상 등은 방치와 방기가 만들어낸 잘 활용되지 못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도시계획에서 방치와 방기가 만들어 낸 공간을 자투리 공간이라 하며 자투리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존재하고 있으나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 둘째, 활용되나 적합하지 않게 쓰이는 공간을 자투리 공간이라 정의할 수 있다(김미나, 2008).

도시에서 유휴공간이란 ‘쓰지 아니하고 놀림’이라는 뜻으로 도시 속에 위치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거나 적합하게 쓰이지 않는 공간을 말한다. 유휴공간은 도시 계획이라는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으로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수명과 활용이 다하여 생긴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한 방치와 방기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심 속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백나영, 2002). 이러한 유휴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비활용 공간과 폐부지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활용 공간은 교통섬이나 고가도로의 하부, 육교하부, 건물의 옥상,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자투리 공간 등이며 폐부지 공간은 가동되지 않는 산업시설 및 공장, 폐교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공간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접근이 공간적으로 외면당하기 때문에 도시 우범지대로 전락하거나 미개발 지역으로 방치되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다(김지영 등, 2013). 이러한 유휴공간은 현재라는 시대에서 바라볼 때 도시환경의 악화요인으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공간의 활용성에 있어 잠재력이 강한 지역이기도 하다(정지호, 2011).

유희공간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건물 옥상부, 건물 사이 공간, 배후 공터와 같은 방치공간과 빈 점포, 배후골목의 상점 등과 같은 쇠퇴공간으로 방치되고 버려진 공간을 의미한다(이상준, 2009). 도로 상의 유희공간을 정의하는 개념도 있는데 도색된 교통섬, 중앙분리대와 같이 차량주행에 쓰이지 않는 공간을 말하며 과도하게 넓은 바깥차선이나 고가도로 하부와 같이 불필요하게 넓은 공간을 뜻한다(김광중 등, 1997). 도시 속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활용되지 않거나 적합하게 쓰이지 않는 모든 공간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는 공간과 적합하게 활용되지 못한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민찬홍과 백나영, 2002). 또한, 유희공간은 사용하지 않고 놓리는 비어있는 곳을 의미하며 군사시설 이적지나 공장 이적지, 폐공장, 폐교, 폐선로 등과 같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용도를 변경한 공간과 정기 시장이나 장터와 같이 한시적으로만 이용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김연진, 2009). 유희 입체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연구에서는 유희용지와 유희시설을 합한 개념으로 유희용지는 건축물이 없어졌거나 건축물의 가치가 전혀 없이 용지만 존재하게 되는 경우, 유희시설은 밀도가 높은 도심지에서 외부공간의 범위가 작은 유희 건축물만 남아있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입체 공간은 도시 기능 내에서의 프로그램의 변화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오준걸과 김광현, 2011).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희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임유경과 김현성, 2012)를 살펴보면, 유희공간으로 정의하는 대상은 필지, 건축물뿐 아니라 대지 내 공지와 자투리 공간을 포함하기도 한다. 도시설계 차원의 논의에서는 건축물 주변부의 설계되지 않은 자투리 공간을 유희공간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시 쇠퇴 및 재생 관련 논의에서는 주로 사용되지 않아 '방치'된 대지 및 건축물을 의미한다(Trancik, 1986; Barnett, 1974). 한편, '기개발지(brownfield)', '버려진 대지(derelict land)' 등은 환경오염 문제에 기인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공한지(vacant)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 집을 짓지 않은 빈터, 둘째, 농경이 가능하면서도 아무것도 심지 않은 토지, 셋째, 도시 내의 택지 중에 지가 상승만을 기대한 토지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한다. 유사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Vacant land(빈 대지) : 최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이 소유하고 있는 저이용 또는 버려진 대지뿐 아니라 버려지거나 쇠퇴한, 부분적으로 허물어진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위치한 대지를 말한다(Pagano & Brown, 2000). 기존에는 사용되었으나 장기간 이용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개발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 Voids(보이드, 빈 공간) : 도시의 빈 공간(urban voids)은 시대 흐름에 따라 용도가 변화하거나 쇠퇴하여 미사용, 저이용 또는 버려진 땅과 부지를 말하며 도시의 빈 공간들은 새로운 도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대상 지역을 재개발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Perera, 1994).
- TOADs(일시적으로 방치된 부지) :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대지(temporarily obsolete abandoned derelict site)의 약어로 오염되고 버려진 부지의 재개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Lost/dead space(잃어버린 공간) : 구조화되지 못하고 남겨진 공간,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땅, 버려진 대지라는 의미로 사용자나 주위 환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배타적인 공간(antispaces)으로 말할 수 있다(Trncik, 1986).
- Brownfield(오염되고 버려진 기개발지) : 도시 내에 위치하면서 '산업 용도로 활용되어 오염된 부지'를 뜻하는 용어였으나 최근에는 농촌의 미개발지와 반대되는 도시의 모든 빈 대지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Barnett, 2003). 심각한 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대지는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시 내 대지들이 오염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개발 잠재력이 있지만, 정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장기간 방치 상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a. 울산시 남구 폐가
(연합뉴스, 2013. 03. 20)



b. 춘천 고가철도 하부 공지
(강원일보, 2013. 11. 6)



c. 수원시 탑동의 버려진 사유지
(경기일보, 2013. 10. 30)



d. 대구시 재개발 중단으로 인한 공터
(영남일보, 2012. 11. 19)

〈그림 3-1〉 유희공간의 대표적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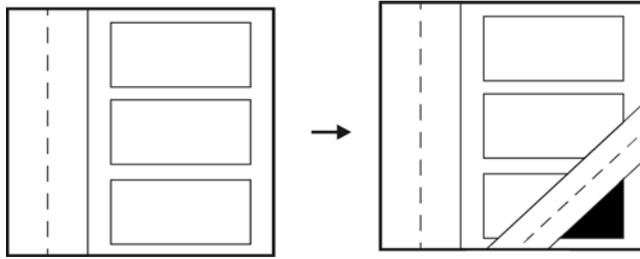
이상의 개념 정의에서 도시 유희공간은 도심부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공간 이면서 도시 쇠퇴 현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동시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재생차원에서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투리 공간을 도시에서 방치된 비건축지역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나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초기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버려진 사이 공간이라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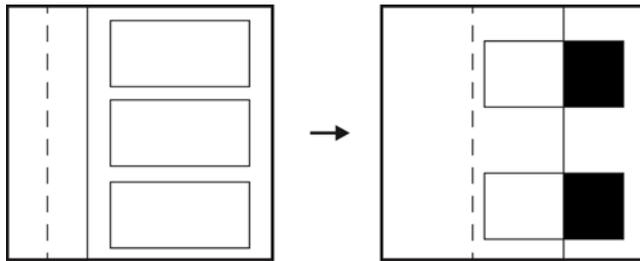
2. 자투리 공간의 형성 요인

자투리 공간이 형성되는 요인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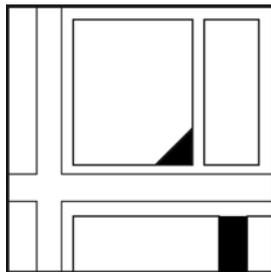
- ① 도로가 확장하면서 기존 도로에 면한 필지가 일부 잘리게 되어 개발에 불리한 형상으로 남게 되는 경우
- ② 기존 가구에 계획도로가 설치되면서 필지의 일부가 잘리게 되어 개발에 불리한 형상으로 남게 되는 경우
- ③ 하천과 도로 등에 의해 형성된 경우로 기존의 자연 지형물 및 신규 개설된 인공 지형물 등에 의해 형성된 경우
- ④ 건물과 건물에 의해 위요되어 형성되는 자투리 부지로, 단독 필지로서의 자투리 공간이 아닌 부수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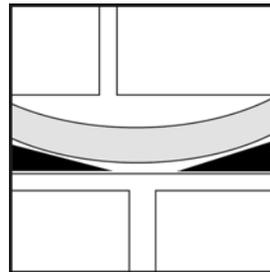
a. 계획도로의 설치로 형성되는 자투리 공간



b. 도로확장으로 형성되는 자투리 공간



c. 건물 사이의 위요되어 형성되는 자투리 공간



d. 하천과 도로 등으로 인해 형성되는 자투리 공간

〈그림 3-2〉 자투리 공간의 형성 요인

3. 자투리 공간의 유형

자투리 공간은 우리의 주변 환경 많은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시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투리 공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 분석할 수 있다.

1) 존재하고 있으나 목적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

도시공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특별한 쓰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공간들을 말한다. 다시 말해 차량이나 인간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간으로 도로의 다양한 교통섬이나 다리나 고가도로의 하부,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자투리 공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a. 건물 사이 공간



b. 교통섬

〈그림 3-3〉 자투리 공간의 한 형태인 비활용 공간 예시
(라펜트 <http://www.lafent.com>)

2) 활용되고 있으나 애초의 목적이나 기능을 왜곡, 상실한 공간

필요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나 그 용도에 비해 불필요하게 넓거나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 앞의 지나치게 넓은 보행자 도로, 하천 및 강 주변의 공간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대부분 도시환경에서 쓰레기 및 각종 물건의 적재, 불법 주, 정차의 공간 등으로 사용되어 도시환경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면서도 활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a. 불필요하게 넓은 보도



b. 쓰레기가 방치되는 달린 공간

〈그림 3-4〉 자투리 공간의 한 형태인 기능이 잘 구현되지 못하는 공간 예시
(라펜트 <http://www.lafent.com>)

제2절 수원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1. 사업 개요

도심 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악취 등의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그 외에도 신축계획이 없는 토지 등과 같은 방치되고 환경이 불량한 자투리땅은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수원시는 2013년 6월부터 수원시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주민, 동 내 단체를 중심으로 쓰레기 투기 지역, 환경 불량 절개지에서부터 수원시 관내 공한지, 방치된 사유지, 공터 등과 같은 자투리땅을 전수 조사한 후 해당 지역을 정비하고 각 동의 실정에 맞게 가로화단, 텃밭, 쌈지공원 등과 같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사업 시행 현황

1) 추진 일정 및 내용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수원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도심 내 쓰레기 투기 및 방치된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과 주민이 소통하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민과 동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원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다. 주택가나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 자투리땅을 파악하여 무료주차장 확보나 소규모 공원이 조성 가능한 환경이 불량한 곳을 주민과 함께 정비하고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라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권선구의 경우 2013년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공한지 및 자투리땅을 전수 조사하여 사업 대상지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 센터와 단체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권선구

내에 존재하고 있는 나대지 현황을 참조하여 현재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거쳐 가장 우수한 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우수기관 평가는 2013년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으며, 평가 분야는 폐기물 야적장, 절개지,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을 활용한 화단조성과 지역 내 골목길,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통 공간(평상, 벤치 등)의 조성 성공 사례 등이다.

2) 추진 과정 및 결과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함께 협력하여 방치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자, '함께 가꾸는 행복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은 표3-1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세무과의 협조를 얻어 방치되어 있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해 도시경관을 해치는 지역, 기타 유휴지를 포함한 나대지 현황을 전수조사 하였다. 이 중 쉼터, 썸지공원, 공동 주차장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발굴하고, 주민회의를 통해 나온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지는 적합성과 사업 추진 후 활용도 충족 여부, 주변 환경 개선 가능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1〉 우리 동네 만들기 주요 추진사항 및 일정

주요 추진사항	추진일정
○ 「우리 동네 만들기」 우수 동 시상 추진계획 시달	2013. 6. 11
○ 구별 공한지 일제조사 공문 시행	2013. 6. 11
○ 공한지 등 일제조사 담당팀장 회의 개최	2013. 6. 14
○ 동별 일제조사 자료 취합	2013. 6. 21
○ 공한지 조사자료 D/B 구축 활용	2013. 6. 26
○ 각 동별 공한지 등 활용방안 수립	2013. 6. 27
○ 사업추진 (구, 동)	2013. 6. 27 ~ 9. 20
○ 동 평가 실시 (현지 확인 및 서면 평가)	2013. 9. 23 ~ 9. 26
○ 우수 동 시상식	2013. 10. 1



〈그림 3-5〉 자투리땅 전수조사 전경



〈그림 3-6〉 주민과 이용협약서 체결

(e-수원뉴스 <http://news.suwon.ne.kr>) (e-수원뉴스 <http://news.suwon.ne.kr>)

사유지의 경우, 우선 토지 소유자에게 공한지 활용 협조를 구하고 그와 사전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 소유자에게는 공공목적에 위한 토지제공 시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주차장 조성 시 주차장 조성 관련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주차 1면당 3만원의 주차수익금 전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분기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향후 주차장에 관한 관리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국유지의 경우에는 점용료 부과 문제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a. 우만2동 「우리 동네 만들기」 - 심터



b. 고등동 「우리 동네 만들기」 - 화단



c. 곡선동 「우리 동네 만들기」 - 텃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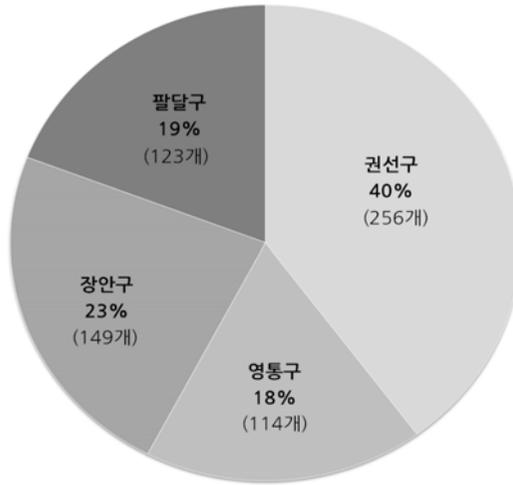
d. 시상식 전경(최우수상을 받은 송죽동)

〈그림 3-7〉 우리동네 마을 만들기 추진 결과(e-수원뉴스 <http://news.suwon.ne.kr>)

진행 과정 중 발생한 지역주민간의 마찰은 「마을만들기」 단체가 적극 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따라 해소할 수 있었고, 유관부서의 지원요청을 통해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해결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버려졌던 자투리땅이 변하여 주민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지역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사회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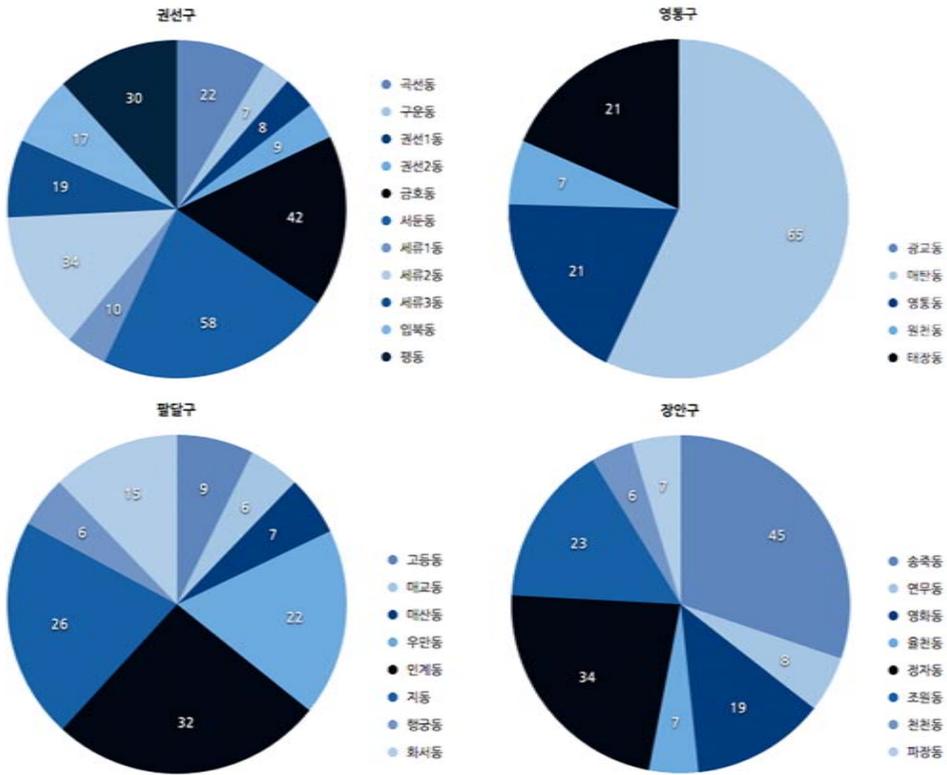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은 권선구 256곳, 영통구 114곳, 장안구 149곳, 팔달구 123곳으로 총 642곳에서 사업이 시행되었고(그림 3-8)(표 3-2), 이 중 40여 개를 선별해서 외부 심사를 거쳤다. 이 결과를 통해 지난 10월 1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아름다운 우리 동네 가꾸기 시상식을 시행하였는데, 최우수상에는 장안구 송죽동, 우수상에는 권선구의 서둔동, 곡선동, 팔달구 우만2동이 각각 선정되었다.



〈그림 3-8〉 수원시 구별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완료 현황

실제 이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방치되어 있던 땅이 정비되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차도 마시고, 쉴 수 있게 되어 더운 날 고생했던 게 아깝지 않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원시장은 사업을 추진해 온 주민들을 '위대한 시민'으로 칭하면서, 우범지역으로 미관을 해치던 공간을 주민이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든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하면서 민관이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의 시범 사례로 본 사업을 평가하였다.



〈그림 3-9〉 수원시 구·동별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완료 현황

〈표 3-2〉 구·동별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완료 현황

구	동	사업 완료 현황	
		개수(개소)	비율(%)
권선구	곡선동	22	8.5
	구운동	7	2.7
	권선1동	8	3.1
	권선2동	9	3.5
	금호동	42	16.4
	서둔동	58	22.6
	세류1동	10	3.9
	세류2동	34	13.2
	세류3동	19	7.4
	입북동	17	6.6
	평동	30	11.7
합계	256	100	
영통구	광고동	0	0
	매탄동	65	57.0
	영통동	21	18.4
	원천동	7	6.1
	태장동	21	18.4
	합계	114	100
장안구	송죽동	45	30.2
	연무동	8	5.3
	영화동	19	12.7
	율천동	7	4.6
	정자동	34	22.8
	조원동	23	15.4
	천천동	6	4.0
	과장동	7	4.6
합계	149	100	
팔달구	고등동	9	7.3
	매교동	6	4.8
	매산동	7	5.6
	우만동	22	17.8
	인계동	32	26.0
	지동	26	21.1
	행궁동	6	4.8
	화서동	15	12.1
합계	123	100	
총계		642	100

제3절 자투리 공간 조사 및 유형 분석

1. 조사 대상지 선정

본 연구는 자투리 공간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유형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수원시에서 추진한 ‘자투리땅을 활용한 「함께 가꾸는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기초로 하여 진행하였다. 수원시 4개 구 40개 동 가운데 낙후지역이라고 인식되는 서수원권 권선구를 대상으로 하여 기초조사와 분석을 실시한 후 세류 1동, 세류2동, 세류 3동, 평동 총 4개의 동의 대상지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권선구는 수원시 서남부에 위치하며 서수원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수원의 서부는 비교적 낙후된 지역이다. 권선구는 수원시 면적의 39%, 수원시 4개 구 중 가장 많은 33만 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서둔동과 곡선동 일대는 논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특수지역에 속한다. 복지 수혜 대상자도 가장 많은 지역이며 소음, 악취, 환경 등 각종 생활 민원이 많아 수원 내 4개 구 가운데 공무원들이 가장 근무를 기피하는 지역으로도 꼽힐 정도로 낙후된 곳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거 중심의 세류동 지역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2단계 지구로 선정되었다. 이 지역은 단독 및 연립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으로 동수원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이 극히 열악한 곳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호매실지구나 세류지구와 같은 택지지구로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녹색 복지’, ‘지속가능한 생동하는 녹색 도시’의 구현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수원시는 서수원권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4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조원의 규모로 수원시 역사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될 이 사업은 60여 년 세월 동안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수원비행장의 이전과 수인

선 전철의 지하화, 농촌진흥청 부지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로서 당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투리 공간의 녹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조사 및 유형 분석

1) 현장조사

권선구 4개 동을 조사하기 위해 면적과 지목, 용도지역, 소유 현황 등 장소의 기본적인 현황부터 지형의 고저, 필지형상, 도로접면을 살펴보았다. 세류 1동, 세류 2동, 세류 3동, 평동은 앞서 분석한 공원·녹지 서비스 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공원·녹지 서비스가 낮게 분석된 지역이다.

현장조사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함께 가꾸는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대상지 관리카드에 기재된 위치와 소유주, 추진 주체, 추진 내용과 정비 전후 사진을 사전조사로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현장조사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요건 중 쇠퇴 지역에 포함되는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지동초등학교 일대를 부근으로 자투리 공간들을 살펴보았다. 쇠퇴 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자투리 공간을 살펴봄을 통해 수원시 자투리 공간의 녹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다. 2013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현장조사에서 수원시에서 진행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이 완료된 곳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차 조사에서부터 5차 조사까지 이어진 현장 조사에서는 권선구 세류 1동, 2동, 3동, 평동을 차례로 조사하였다.

사업 정비 전의 대상지는 모두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는 미이용/방치 상태였고 상당수가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많고

토양이 그대로 노출된 장소가 많았다. 인접 건축물의 필지 상태는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나 현재 주거, 상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정비 후 현황 사진을 보면, 기존 자투리 공간을 주로 화단, 텃밭, 주민 쉼터 등으로 조성하였고 사업 직후에 바로 개선 현황 사진을 촬영하여 쓰레기는 아직 방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대상지가 대부분 가로화단인 경우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곳들이 대다수로 확인되었다.

〈표 3-3〉 현장조사 위치 및 현황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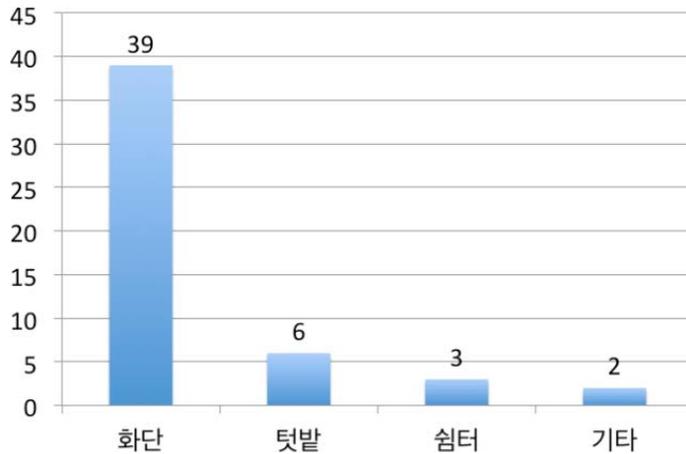
구분	주소	면적 (㎡)	지형 및 물리적 현황		
			형태	위치	토지이용
1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223-2	972	가장형	도로-도로	화단
2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223-2 세류1동주민센터	972	가장형	도로-도로	화단
3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덕영대로 997번지(수인선공원)	393	삼각형	도로-인도	화단
4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덕영대로 997번지(수인선공원2)	393	삼각형	도로-인도	화단
5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덕영대로 997번지(수인선공원3)	393	사각형	인도-인도	화단
6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과선교 밑	112	가장형	도로-도로	화단
7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207 세류중학교 담장 밑	41	가장형	건물-인도	화단
8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554-31, 64, 65	209	사각형	도로-건물	쉼터
9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035-113	124	삼각형	도로-도로	화단
10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005-28	166	사각형	도로-건물	텃밭
11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546-24	40	삼각형	도로-건물	쉼터
12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003-6	8	부정형	도로-건물	화단
13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005-2	35	가장형	도로-건물	화단 (띠화단)

구분	주소	면적 (㎡)	지형 및 물리적 현황		
			형태	위치	토지이용
14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439-7	15	가장형	도로-건물	화단
15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566-4	15	사각형	도로-도로	폐기물적치
16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32-10	20	부정형	도로-도로	화단
17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546-6	10	삼각형	도로-건물	화단
18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543-3	15	삼각형	도로-건물	화단
19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48-56	9	사각형	도로-건물	화단 (플랜터박스)
20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021-4 한주아파트 뒤편	15	원형	도로-도로	화단(플랜터박스)
21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838-2	64	삼각형	도로-건물	화단
22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868-4	10	가장형	도로-건물	화단
23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47-3	12	삼각형	도로-건물	화단
24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526-6	30	가장형	도로-도로	화단
25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42-4	15	부정형	도로-도로	텃밭
26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48-15	15	가장형	도로-도로	화단 (띠화단)
27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476-11	40	삼각형	도로-건물	화단
28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56-45	10	가장형	건물-인도	화단
29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64-3	126	가장형	건물-건물	텃밭
30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483 버드내노인복지관 앞	15	부정형	도로-인도	텃밭
31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483 버드내노인복지관 내 무대	25	사각형	도로-건물	무대
32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483 버드내노인복지관 화장실 앞	21	사각형	도로-건물	화단
33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850-4 열린교회 앞	8	가장형	도로-건물	화단

구분	주소	면적 (㎡)	지형 및 물리적 현황		
			형태	위치	토지이용
34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868-4 맞은편	36	가장형	도로-건물	화단
35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851-1 청와빌2 앞	9	가장형	도로-건물	화단
36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849-3	27	가장형	도로-인도	화단
37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0-8	66	가장형	도로-건물	화단
38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25-15 영신중학교 후문	90	가장형	도로-건물	화단
39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32-3 앞	10	가장형	도로-건물	화단
40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391-8	3,075	사각형	도로-건물	주차장
41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99-41 하나타운 내	15	삼각형	도로-건물	텃밭
42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62-14, 64-9	45	삼각형	도로-건물	화단
43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40-22 효창주택 옆	110	가장형	도로-건물	화단
44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64-16 옆	64	부정형	도로-건물	화단
45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52-22	24	가장형	도로-건물	화단 (띠화단)
46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32-1	20	삼각형	도로-건물	화단
47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32-4	42	가장형	도로-건물	화단 (띠화단)
48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390-15 옆	140	가장형	도로-도로	텃밭
49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37-1 영신여고 맞은편	48	삼각형	도로-도로	텃밭
50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27-11 옆	24	부정형	도로-도로	화단(쓰레기적치)

2) 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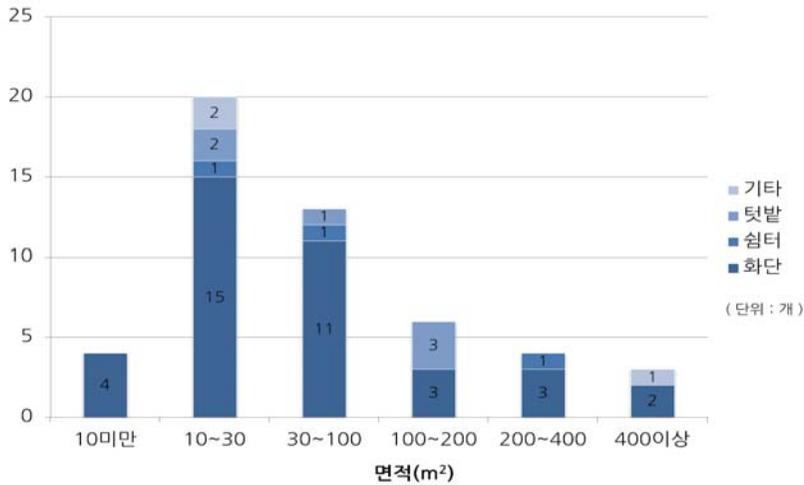
대상지의 용도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화단으로 이용되는 곳이 39곳, 텃밭은 6곳, 쉼터는 3곳, 기타는 2곳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이용되는 공간은 주로 복지관 내의 무대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지역이다.



〈그림 3-10〉 자투리 공간의 현재 이용 현황

현장조사 결과, 10㎡ 미만은 4곳, 10㎡~30㎡는 20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0㎡~100㎡는 13곳, 400㎡ 이상은 3곳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면적에 따른 자투리 공간 이용 현황을 분석해보면 면적 10㎡ 미만의 자투리 공간은 전체 대상지 100% 모두 화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면적 10~30㎡의 경우 전체 대상지 중 15곳(75%)이 화단, 2곳(10%)이 텃밭, 1곳이 쉼터, 나머지 2곳은 무대로 조성된 1곳, 폐기물 적치장 1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적 30~100㎡의 경우 화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쉼터와 텃밭이 각각 한 곳씩 이용되고 있었다. 면적 100~200㎡의 경우 화단과 텃밭이 각각 3개씩 같은 비율로 이용되고 있었고, 면적 200~400㎡의 경우 화단이 3곳, 쉼터가 1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적 400㎡ 이상인 지역은 2곳이 화단, 1곳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림 3-11〉 자투리 공간 면적별 분포 현황

면적에 따른 자투리 공간의 이용 종류를 살펴보면 면적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화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좁은 면적일수록 소규모 화단으로 이용되는 곳이 많았으며, 100㎡ 이상의 넓이에서 텃밭 등의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성된 공간이 개인이 조성한 텃밭이 아니라 관 주도로 조성된 마을 공동 텃밭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넓은 자투리 공간에서도 화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투리 공간이 단편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향후 다양한 자투리 공간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3-12〉 화단으로 조성된 자투리땅



〈그림 3-13〉 텃밭으로 조성된 자투리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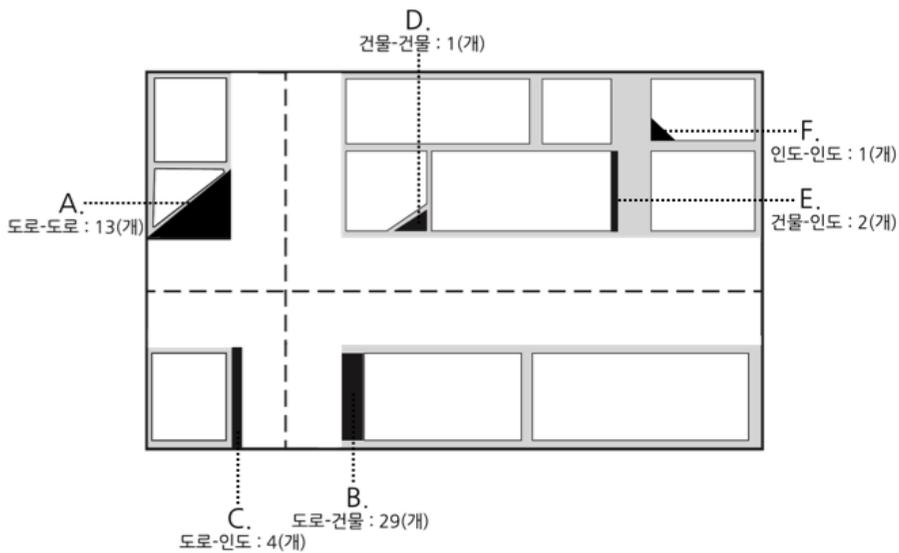


〈그림 3-14〉 주민센터로 조성된 자투리땅



〈그림 3-15〉 주위 상업시설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자투리땅

대상지로 선정된 자투리땅의 위치를 보면, 도로와 접하는 곳에 생긴 자투리 땅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중 도로와 건물 사이에 위치한 공간이 29곳으로 가장 많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공간이 13개로 두 번째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생긴 자투리땅과 인도와 인도, 인도와 도로(차도) 사이에 생긴 자투리땅은 각각 한 곳으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



〈그림 3-16〉 위치에 따른 자투리 공간 구분

위치에 따른 자투리 공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건물에서 29곳 (69%), 도로-건물에서 23곳(79%) 등 많은 지역이 화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도로-도로의 3곳, 도로-건물의 2곳, 건물-건물의 1곳이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제외한 모든 위치는 대부분 화단으로 이용되었고 도로-도로, 건물-건물 지역에서 비교적 다양한 이용 형태가 발생되고 있었다.

50개 대상지 지형의 형상을 분류해보기 위해 토지 특성 조사 시 사용하는 형상 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자투리 공간 형상 분류 기준표는 토지 특성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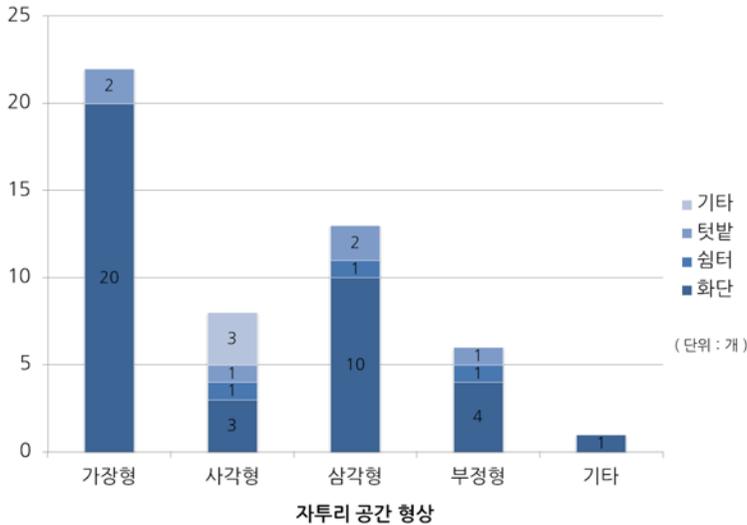
사 항목을 일부 이용하였다. 토지특성조사는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입지적 특성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항목으로는 지목, 면적, 용도지역, 지구, 기타 공적 제한을 받는 구역, 토지의 형상 및 방위, 지세, 토지 이용현황, 도로조건, 혐오 시설물 접근성 등이 있다. 토지 특성 조사내용을 기초로 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다(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 2011). 이 중 정방형과 사다리꼴 사각형으로 분류하였고, 삼각형과 역삼각은 삼각형으로 재분류하였다.

〈표 3-4〉 자투리 공간 형상 분류 기준표

구분	적용범위
정방형	정사각형모양으로서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가 비슷한 모양의 토지
가장형 (가로장방형)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세장형 (세로장방형)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사다리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변형사다리형 등 최우효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 포함)
삼각형	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역삼각	삼각형의 토지로 꼭짓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부정형	불규칙한 형상으로 인하여 최우효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다각형 또는 부정형 토지

토지 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해본 결과 가장형의 형태가 22개로 가장 많았으며 삼각형, 사각형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형상으로는 원형의 화분의 경우가 있었다. 토지 형상에 따른 공간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형의 91%, 삼각형의 77%, 부정형의 67%가 화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사각형의 경우는 화단이 3곳으로 기타 이용(폐기물 적치, 무대, 주차장)과 이용 빈도가 같았으며, 텃밭 1곳, 쉼터 1곳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대부분이 화단으로 이용되는 현황을 감안할 때, 사각형 등과 같이 다양한 토지이용이 가

능한 자투리 공간은 그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7〉 형상에 따른 자투리 공간 구분

3) 소결

총 50개의 대상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면적별 분류에서는 대체로 100㎡ 이하의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중 약 15㎡의 면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조성된 자투리땅은 규모가 조금씩 다를 뿐 대부분 화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텃밭이나 무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토지이용의 편향은 대상지별 계획 방향을 수립하기 전에 자투리 공간의 면적, 위치, 형상 등과 같은 객관적인 현황을 전제로 하지 않고 녹화 전략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연구 초기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자투리 공간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대상지가 대체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도로와 건물 사이에서 발생한 자투리땅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투리땅 형상의 경우에도 사각형의 형태가 많았고 플랜터로 꾸며진 화단이나 띠녹지 형태로 조성된 화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타 형상으로는 원형의 화분 이외에는 대부분 사각형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었고 건물 귀퉁이나 도로와 건물에 의해 형성된 삼각형의 형태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 면적, 조건을 보유한 자투리 공간이 대부분 화단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수원시 자투리 공간 특성을 고려한 녹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관리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성뿐만 아니라 조성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 부분까지 조성 절차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a. 사각형으로 조성된 화단(플랜터화단)



b. 사각형으로 조성된 화단(띠녹지)



c. 삼각형 화단



d. 부정형 화단

〈그림 3-18〉 자투리 공간 형상별 화단 조성 현황

제4장

자투리 공간 녹화전략

제1절 자투리 공간 녹화사례

제2절 녹화전략

제4장 자투리 공간 녹화전략

제1절 자투리 공간 녹화사례

1. 자투리 공간 녹화 개요

쓸모없어 보이던 자투리 공간이라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의 경우에는 담장 구간을 헐어 보도의 폭을 확장하고 나무를 심어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골목길 자투리 공간에 화단을 가꾸거나 동네 공터에 작은 쉼터를 조성하는 등 공간에 시설물을 조성하기도 하고 주차장이 비어 있는 시간에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한평공원은 도시 연대를 주축으로 주민, 공무원, 전문가, 지역기업들이 작은 생활공간 개선을 위해 역할 분배와 통합에 대한 협력적 작업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는 방치된 생활공간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 및 시공, 조성이후의 관리까지 주민들이 주도한다.

포켓파크(pocket park)는 보도 등 주로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간에 접하여 두는 공간으로 고밀화된 도심부에서 만남의 장, 휴식처의 정비나 도시 경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소공원을 말한다. 포켓파크는 공공포켓파크와 공개포켓파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 포켓파크는 공공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후 조성, 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규모가 작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포켓파크로 조성되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개 포켓파크는 새로운 토지 확보가 어려운 고밀도 시가지 내에서 민간 소유 대지의 외부 공간 중 일부를 개방하여 주변 이용자들을 위한 소규모 공간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포켓파크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라자 또는

갤러리 등의 명칭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에서는 공개공지라는 명칭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자투리 공간 녹화 사례를 고찰하여 수원시에 적합한 녹화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한평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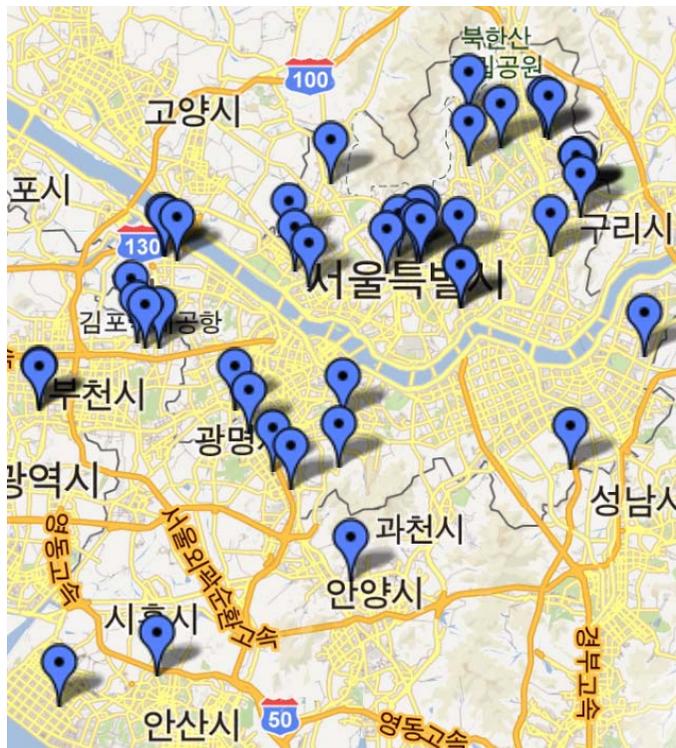
한평공원은 2002년 도시만들기 시민연대가 신한은행의 지원을 받아 주민참여로 만든 작은 공원이다. 한평공원은 기본적으로 주민참여로 만들어지며 주민들은 대상지 선정, 디자인 과정, 시공 과정 등에 참여한다. 즉, 방치된 마을의 자투리 공간을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유의미한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한평공원은 단지 주민참여로 물리적인 공원 하나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 참여의 과정을 통해 동네에 애정을 갖는 주민들이 생기게끔 하고, 마을의 다른 공동체 활동과 어우러지며 마을 만들기의 중요한 매개로 역할을 한다. 기간은 2~3주 정도로 짧으며 기본적으로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는 사업이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조성된 45개의 한평공원은 ‘45개의 작은 공원’이라 할 수 있다. 이 형식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마을 안에 방치된 자투리땅에 만드는 작은 공원’ 정도가 될 것이다. 마을 안의 자투리 공간은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하지만 자투리 공간이라고 해서 방치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주가 무관심하거나 쓸모가 없는 땅의 경우 방치되는데 이때 쓸모는 용도 이외에 부동산 가치를 포함한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시유지로 구입된 후에 방치되고 있는 땅이 1,500억 원에 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방치되는 땅의 전국 규모는 139조원에 이른다. 도시연대에서 추진하는 한평공원 조성사업은 마을 안에 있는 자투리 공간, 방치된 땅을 대상으로 했고 현재에도 대상지 선정의 국유지나 시유지, 사유지 중에서도 어떤 쓸모나 용도가 불확실한 곳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다.

한평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의 설계 등에 커뮤니티디자인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도 이른바 ‘주민참여가 활발할 수 있는 곳’ 혹은

‘주민참여가 활발한 곳’을 고민하고, 조성까지 전반적인 사업진행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 소식지 배포, 주민워크숍 등의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박승배, 2013).

한평공원원 명칭은 ‘한 평’도 공원이 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로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상징체계로서의 공간기제이며 동시에 버려진 것이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며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 평을 계기로 파편화되어 있는 개인적 일상이 서로 모이고, 서로가 자기 것을 남과 나누고, 나만을 위한 일상에서 벗어나 공유와 교류를 위한 사회적 삶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공동체의 기본을 이야기한다. 한 평이 수십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즐기고 나누는 공원처럼 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가치와 의견을 가지더라도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한 평의 버려진 땅에 가득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림 4-1〉 2013년 기준 한평공원 조성 현황

(<https://maps.google.com/>)

한평공원과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은희(2004)는 한평공원 만들기는 공간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며 ‘보이는 근사한 시설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소통’을 추구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안현찬(2010)은 한평공원 만들기는 단순한 도시녹화사업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생활공간에 대해 바라보고 스스로 개선점을 찾아가는 ‘생활환경 개선운동’이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출발점이라 평가하였다. 한평공원과 관련된 연구에서의 공통점은 한평공원이 단순히 마을의 시설이 아니라 참여과정에서 주민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소통의 매개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체부동의 ‘빨간 벽돌 한평공원’은 약 4.0㎡의 작은 공간이다. 경복궁 서쪽 세종마을의 한옥 밀집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빌라가 신축되기 시작하면서 집과 집을 이어주는 길의 기능을 상실한 막다른 골목이나 쓰레기, 풀만 무성하던 자투리땅이 많아졌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어르신들의 산책공간과 놀이 공간 또는 주민들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공원을 조성한 후로도 주민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수칙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창신동 소재의 ‘한땀한땀 한평공원’은 이곳에 크고 작은 봉제공장이 다수 밀집해있는데서 유래했다.



〈그림 4-2〉 체부동 빨간 벽돌 한평공원
(라펜트 <http://www.lafent.com>)

〈그림 4-3〉 창신동 한땀 한땀 한평공원
(라펜트 <http://www.lafent.com>)

공영주차장 한편에 위치한 공간으로 마을의 특성과 자랑거리 등을 마을지도에 담아 봉제 원단을 사용해 이색적으로 표현하고 게시판에는 창신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과거 사진을 걸어두어 그야말로 지붕 없는 마을 박물관, 마을 알람터를 만들었다. 일부 공간은 공원 인근의 어르신들이 가꿀 수 있는 텃밭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의 노후화된 놀이터를 리모델링 프로젝트에서 시도된 ‘디자인 마켓’은 디자이너들이 계획한 여러 가지 디자인 제안을 주민들이 직접 고르게 하고 이를 시장에서의 구매행위로 재현하여 이렇게 주민들이 구매한 컬렉션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발언하게 하는 일종의 참여시물레이션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건축대학생들이 디자인 마켓의 디자이너로 참여하여 놀이시설을 돌기, 뛰기, 매달리기 등의 몇 가지 기본 행동 패턴으로 분류하여 그에 맞는 놀이기구들을 직접 고안하였고, 이를 놀이터 주 이용층인 어린이들에게 선택하도록 하여 놀이터에 들어갈 기본 놀이 시설들이 선정되었다.



〈그림 4-4〉 수원시 영통구 도롱뇽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모습(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 연대 <http://www.dosi.or.kr>)

새로운 놀이터는 지형을 이용한 다양한 굴곡을 만들어 리모델링하였고 기존의 놀이기구는 안전하게 보수하였다. 놀이시설 전체는 ‘도롱뇽’을 형상화하여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도록 완성하였다.



a. 조성 전



b. 조성 후

〈그림 4-5〉 도롱뇽 놀이터 조성 전/후 모습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 연대 <http://www.dosi.or.kr>)

2006년 조성된 등근 언덕 놀이터는 2006년 서울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 옆의 외부 공간에 조성되었다. 이 시설은 임대 아파트 단지 안의 보육시설이자 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당, 무료 미용실, 직업 훈련실 등이 운영되는 곳이며 아동 지체장애인과 치매를 앓는 노인들이 같이 지내는 공동체이다. 이곳은 거주민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낡은 시소와 그네만이 있는 시설 옆 놀이터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실내 프로그램과 활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버려져 방치되어 있었다. 한평공원 참가자들은 지역주민, 복지관 이용자, 선생님들로부터 버려진 놀이터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집하였는데 이곳은 주취폭력이나 도박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이 공간의 요구사항 중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복지센터와 후원단체가 ‘놀이터가 엄청 바뀌면 좋겠어요’라는 이름으로 기존 놀이터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새로운 놀이터 만드는 일을 홍보하는 행사를 기획했고, 더불어 부족한 자원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오래 방치되었던 놀이터에서 위험물을 치우는 행사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미래에 가지고 싶은 놀이터 그리기, 놀이터 이름 만들기 등의 주민참여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주민들이 주변에 버려져 있던 공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새로운 놀이터에 대한 바람을 표

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새로운 놀이터는 동네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뫼동산'의 이미지에서 발전하여 '둥근 언덕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구현되었다. 언덕을 이용한 미끄럼틀과 굴곡진 언덕, 모래사장은 아이들을 위한 좋은 놀이공간이며 주민들의 쉼터가 되었고 언덕의 이면을 이용한 야외 스탠드와 무대는 때때로 야외 강의실로도 활용되어 교육기능도 포함된 다목적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그림 4-6〉 놀이터 홍보 모습
(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 연대 <http://www.dosi.or.kr>)



a. 조성 전



b. 조성 후(둥글 언덕 놀이터)

〈그림 4-7〉 둥글 언덕 놀이터 조성 전/후 모습
(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 연대 <http://www.dosi.or.kr>)

3. 도시 생생 프로젝트

초기 생생 프로젝트는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Take Urban in 72 Hour 프로젝트 : 도시의 유휴지를 찾아 72시간 동안 새롭게 만들어본다’로 출발하였다가 도시 생생 프로젝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공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실정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서울시장이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72 Hour Urban Action’ 정보를 접한 이후 서울시 직원들에게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도시 생생 프로젝트 개최식에서 김병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대규모 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이제는 외면 받았던 소규모 공원을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잊힌 공간을 재창조하는 시범 모델이 될 것이라며 변화를 기대했다. 시민들이 멀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녹색복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공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림 4-8〉 서울시 자투리 공간 공모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

서울시가 프로젝트의 대상지인 자투리땅을 발굴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맡겨 시민들이 미관개선이 필요한 33곳을 추천했으며, 시·구유지 16곳이 선별되었다. 시민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가 심하고 방치된 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 이용도가 낮은 지역의 개선을 필요로 했다. 자투리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이용가능하고 보기에 좋았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볼 수 있다. 72시간 밤낮을 꼬박 들인 참여자들은 10월 13일 10시가 다 되어서야 작업을 끝낼 수 있었고 일반 8팀의 작품을 대상으로 최우수작과 우수작이 가려졌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공통된 생각은 휴식과 안전, 그리고 심미성이다. 시민들은 대상지를 추천하면서 어둡고 음침한 곳을 밝게 만들어달라거나 이용 가능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이와 의견을 같이 한 작업자들은 '의자', '조명', '식물'이라는 요소를 자투리 공간에 적용했다.



〈그림 4-9〉 행당역에 설치된 우수작품
(모두가 꿈꾸는 의자팀, 'CHAir')
(라펜트 <http://www.lafent.com>)



〈그림 4-10〉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수작품
(라이브스토리팀, '감각대화복합체 복실이')
(라펜트 <http://www.lafent.com>)

최우수상을 받은 '13 Collaboration'은 동네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상도마실'로 이름 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수다공간이자 동네 주민 누구나 모여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을 위한 밝고 상큼한 공간, 자투리 공간을 자투리 물건으로 만든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특히 빈 병이나 통조림 캔을 이용한 화분과 쓰다 남은 철재나 고밀도압축

목재를 이용하여 생활 주변의 폐기물이 공공공간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환경과 조경 ela. 2013. 12. N308).



a. 프로젝트 이전



b. 프로젝트 이후(주민쉼터)

〈그림 4-11〉 동작구 프로젝트 전/후 대상지 전경(라펜트 <http://www.lafent.com>)

강동구 프로젝트 대상지는 2011년 도로가 추가로 개설된 후 발생한 삼각형 모양의 자투리땅으로 배후는 주택가, 도로에 접한 곳이며 기존에는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이 공간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모듈화하고 다양한 색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인 한글놀이터를 조성하였다.



a. 프로젝트 이전



b. 프로젝트 이후(한글놀이터)

〈그림 4-12〉 강동구 프로젝트 전/후 대상지 전경(라펜트 <http://www.lafent.com>)

4. 서울시 생활 공원

공원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시 근린 생활권에 국비를 지원해 생활공원을 조성하고 공, 폐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등 다양한 '동네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공원 취약지역이면서 서비스 효과가 큰 곳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2017년까지 총 1,000곳의 생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a. 사업 이전



b. 사업 이후(녹지공간)

〈그림 4-13〉 서울시 강서구 평고개공원 사업 전/후 대상지 전경
(라펜트 <http://www.lafent.com>)

5. 서울시 한뼘 동네 공원

서울시 내에 걸어서 10분 거리인 500m 이내에 공원이 없는 공원소외지역에 '한뼘 동네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발길이 닿는 곳 어디든 편안한 휴식처를 마련하고자 추진된 정책이다. 한뼘 공원 1개소가 생기면 반경 250m의 공원소외지역이 해소된다. 대상지도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parks.seoul.go.kr)와 각 자치구 공원녹지과를 통해 소외지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다. 이 대상지들은 공원소외지역과의 연계성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효과성, 주민참여의지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한뼘 동네

공원' 대상지로 선정되면 약 6개월에 걸쳐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조성 단계로 넘어간다. 공원, 커뮤니티 공간, 텃밭, 어린이 놀이시설 등 합의를 한 시설들을 주민들이 모두 선택하고 조성 후에도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관리까지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그림 4-14〉 서울 서대문구 안산연희쉼터
(서울 하이뉴스 <http://m.inews.seoul.go.kr/>)



〈그림 4-15〉 서울 은평구 마을마당
(서울 하이뉴스 <http://m.inews.seoul.go.kr/>)

6. 기타 사례

1) 휴메트로 커뮤니티 파크 3호점

2011년부터 부산교통공사와 부산그린크러스트는 녹색성장 업무협약을 맺어 도시 재생형 쌈지공원을 조성해왔다. 그 일환으로 2013년 10월 28일 남포역 5번, 7번 출구 사이에 휴메트로 커뮤니티파크 3호를 조성하여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쌈지공원은 도심으로 향하는 입구에 자리하고 있고, 롯데백화점과 영도대교로 이어지는 전이공간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곳은 그동안 노숙자와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무분별한 시설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기피해 슬럼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어온 곳이다. 이에 휴메트로 커뮤니티 파크는 기존의 도시 내 시설을 재활용하여 도시재생을 꾀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 내 미관 저해요소로 남아있는 지하상가 냉각탑을 LED조명과 함께 도시경관시설물로 탈바꿈시켰

으며 지하철 환기구를 휴게 및 자전거 보관대와 같은 시민편의시설로 새로 조성하였다. 지하철 환기구벤치는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것으로 도시 미관 개선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를 대변하는 요소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빗물의 재활용과 함께 기존 도로시설물을 재활용한 도시재생의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와 더불어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기법)를 적용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한데 빗물 재이용 순환시스템은 버려지는 공원 주변의 빗물을 공원 내부로 저류시켜 녹지의 관수 및 공원용수로 재활용하는 기법으로 휴메트로 커뮤니티 파크는 이 기법이 삼지공원에 적용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다(환경과 조경, 2013. 12).



a. 사업 이전



b. 사업 이후(삼지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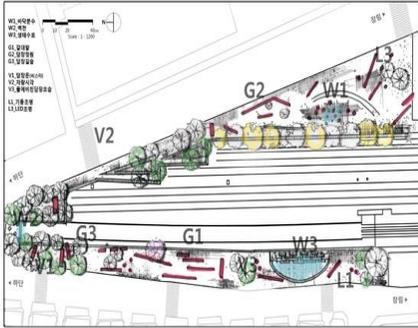
〈그림 4-16〉 부산시 휴메트로 커뮤니티 파크 3호점 사업 전/후 대상지 전경
(라펜트 <http://www.lafent.com/>)

2) 휴메트로 커뮤니티파크 1호점 - 북적북적 담장공원

2011년 부산교통공사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첫 도심형 쌈지공원을 조성하였다. 신평 차량사업소에 들어서는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공사가 2012년부터 매년 쌈지공원 1~2개소, 쌈지 녹화 100개소를 조성, 2020년까지 부산도시철도 1,004개소에 녹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휴메트로 커뮤니티 1004파크' 계획의 첫 번째 사업이다(환경과 조경, 2011.07.25).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신평 차량기지에는 휴메트로 커뮤니티 파크 1호 공원인 '북적북적 담장공원'이 있다. 500m² 규모로 조성된 공원에는 느티나무, 둥근 소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고 꽃화단이 조성되었으며 커뮤니티 담장, 랜드마크 담장 등 테마를 가진 시설 및 체육시설물이 설치됐다.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으로 생활권내 공원·녹지가 부족했던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동 일대에 녹지 체험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교통공사는 담장공원을 만들기 위해 설계공모를 거쳤고, 부산그린트러스트 등 시민단체도 참여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도시철도 담장을 활용하다보니 벤치 몇 개와 운동기구 등이 시설의 거의 전부라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공원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보행이 가능하고 녹지 비활용으로 녹지체험의 공간의 부족함을 느끼게 했던 쉼스를 '담장'으로 전환시킨 작품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보행패턴과 시각적 효과가 일어나 녹지를 보기만 했던 1차원적 공원을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화시켰다. 공원의 각 요소들과 담장의 결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도 성공했다. 또한, 안전하고 복합적인 활동과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보행길과 공원의 성격을 결합시켰다. 아울러 공간적 특성과 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수목을 배치, 공원의 정체성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디자인을 제시했다.



〈그림 4-17〉 북적북적 담장공원 마스터플랜
(라펜트 <http://www.lafent.com/>)



〈그림 4-18〉 북적북적 담장공원 현황사진
(뉴스시스 <http://www.newsis.com/>)

3)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성당 - 서울시 녹지 활용 계약 체결 사례

2011년 11월 19일 서울시는 강동구 천호동 397-413번지 사유지 동산 3,300㎡에 대하여 서울시 최초로 천호동 성당과 제1호 녹지 활용 계약²⁾을 체결하고 주민쉼터를 조성하였다. 주택 밀집 지역인 강동구 천호동 일대는 공원 소외지역으로 천호동 성당 뒷동산만이 유일한 녹지공간이었다. 성당 내부의 사유지이지만 서울시와 녹지 활용 계약 체결을 통해 토지 보상 없이 주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이 공간을 120m의 순환 산책로와 음수대 1개소 등을 포함한 시민들의 소통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미관 저해 요소인 주택 담장은 목재 트렐리스(trellis)를 설치하고 사계절 꽃이 피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배롱나무 외 12종 13,700주의 수목을 식재했다.

2) 녹지 활용 계약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내용이다. 녹지 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토지 소유자는 해당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녹지 활용 계약의 체결 기준은 ① 300㎡이상의 면적인 단일 토지, ② 녹지가 부족한 도시 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 활용 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 ③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으로 정리된다.



〈그림 4-19〉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성당에 조성된 주민 휴식 공간
(라펜트 <http://www.lafent.com/>)

7. 종합

자투리 공간의 녹화 사례 중 대부분은 공공공유지를 이용한 녹화사례로 파악된다. 천호동 성당과 같이 사유지를 대상으로 녹지 활용 계약을 통해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고 대상지의 식생을 유지, 보전, 이용하는 형태는 사례 중 독특한 녹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녹화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이를 매개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사례별로 가장 큰 차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했는지이다. 한평공원은 기업의 후원을 바탕으로 시민단체 주도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휴메트로 커뮤니티파크 조성사업 역시 부산교통공사에 의해 부산도시철도 1,004개소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시민참여형 녹화사업이라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사례는 기업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간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민과 기업, 행정, 시민단체가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공원·녹지

가 지닌 공공적인 성격에 의해 행정이 주도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자투리 공간 녹화 사례 정리

사례 종류	소유권	녹화유형	지속성	역할분담		
				주민	기업	행정
한평 공원	공공공유지	소공원화, 텃밭, 커뮤니티 공간 등	지속	◎	○	○
도시 생생 프로젝트	공공공유지	소공원화, 커뮤니티 공간 등	부분 지속	◎		○
서울시 생활공원	공공공유지	생활근린공원, 쉼터 등	지속			◎
서울시 한 뼘 동네공원	공공공지	소공원화, 커뮤니티 공간, 어린이 시설 등	지속	◎		◎
휴메트로 커뮤니티 파크	공공공유지	소공원화	지속	◎	◎	○
녹지 활용 계약	사유지	소공원화	지속	○		◎

◎ : 조성에 주체가 됨 ○ : 조성에 관여함

도시 생생 프로젝트는 대형 공원 조성 위주의 공원·녹지 확보 정책이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정책으로 바뀐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업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자신들의 생활공간 속에서 불편한 사항, 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제안하고, 전문가는 시민의 의견을 공간계획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자투리 공간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또한, 서울시 한 뼘 동네공원, 서울시 생활공원 역시 시민 생활권에 필요한 공원·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미 있는 시도라 판단된다.

이제까지 추진된 자투리 공간 녹화 사업은 모두 수원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격이라 판단된다. 물론 사업의 성격이 소공원 조성 중심인 부분은 자투리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녹화 전략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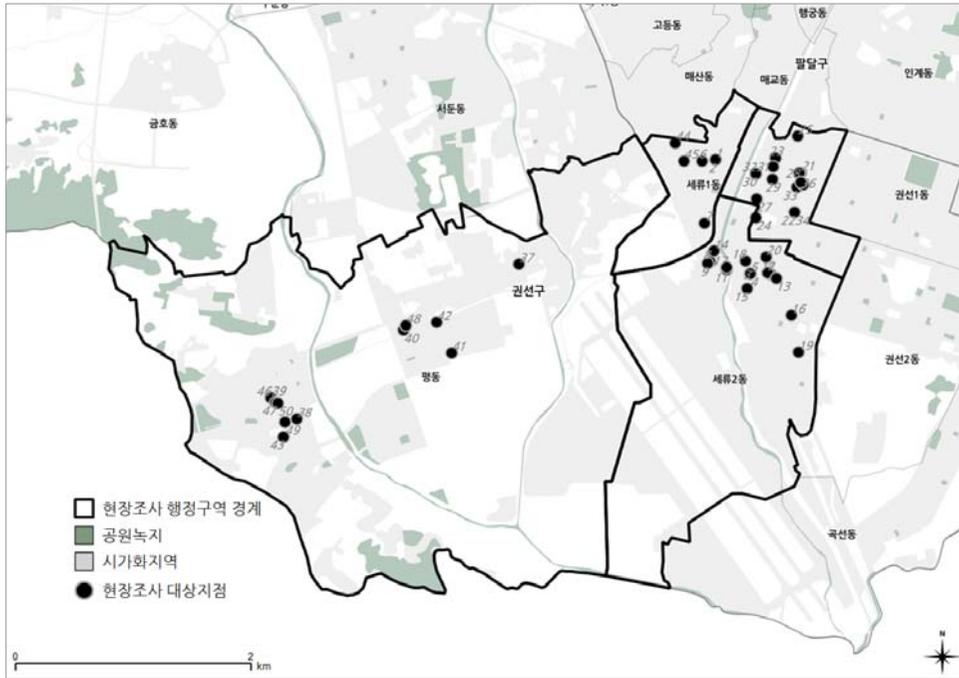
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투리 공간을 변화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도 필요하다.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묘목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 공간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화 계약’ 등의 적용도 고려해볼 만하다.

제2절 자투리 공간 녹화전략

1. 공간 유형별 녹화전략

수원시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투리 공간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투리 공간의 범위를 도시에서 방치된 오픈스페이스로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거나 초기 조성된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버려진 사이 공간으로 정의하고 그에 맞는 자투리 공간을 대상으로 기초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사된 대상지인 수원시 권선구 세류1,2,3동과 평동 일원은 낙후되어 주변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 등의 노후화 상태 및 도심 관리 상태도 타 지역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지역을 녹화 대상지로 잘 활용한다면 지역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주민의 커뮤니티 향상 매개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에서 총 50개 자투리 공간을 조사하였다. 앞서 분석한 자투리 공간 유형화 결과 74% 지역이 100m² 이하의 작은 공간이었으며 입지상 도로와 도로(26%) 또는 도로와 건물 사이(56%)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입지 특성으로 전체의 44%가 가장형의 공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상지의 크기, 위치, 형태 등이 다양하지 못한 특징이 있었으나, 그런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수원시에서 해당 자투리 공간이 활용되는 방식은 78%가 화단, 12%가 텃밭이고 단지 6%만이 쉼터 기능이 있는 썸지공원 형태로 파악되었다. 이는 공간의 협소함이나 입지적 고립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한 번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



〈그림 4-20〉 현장조사 대상지점

1) 기본방향

자투리 공간을 효과적으로 녹화하기 위해서는 대상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투리 공간 입지, 면적, 위치, 형태 등을 고려한 물리적인 녹화 유형 구분 작업이 필요하다. 자투리 공간 입지는 주변에 공원·녹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자투리 공간이 소공원의 형태 이하의 공원 형태로 조성될 수 있으므로 반경 250m를 기준으로 주변에 공원·녹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유형 구분이 가능하다. 자투리 공간 면적, 위치, 형태는 앞서 분석한 자투리 공간 유형 분석에 따라 유형화 작업이 가능하다.

〈표 4-2〉 자투리 공간 녹화를 위한 고려 요소

고려 요소	설명	유형 구분 참고사항
입지	반경 250m 이내 공원·녹지 존재여부	쉽터형 공원 조성
면적	대상지 면적(m ²)	공원 시설 도입 가능성
위치	도로, 인도, 건물과의 위치	휴식형, 경관형 공간 여부
형태	사각형, 삼각형, 부정형, 가장형 등	공원 시설 도입 가능성
경사	경사도(%)	공원 시설 도입 가능성
토지소유	국·공유지, 사유지 여부	토지이용 계약 필요
주변토지이용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	자투리 공간 기능 설정
주민의견	지역주민 의견	선호하는 공간
기타	기타 참고사항	통행량, 관리문제 등

2) 자투리 공원형

대상 자투리 공간 주변에 공원·녹지가 존재하지 않고 대상지 면적이 10m² 이상 확보될 수 있으며 도로와 도로로 고립되지 않고 형태가 가장형이 아닌 원형에 가까운 형태인 경우에는 자투리 공원형 녹화가 가능하다. 자투리 공원은 한뼘공원과 같이 주변에 공원이 충분하지 않은 도심에서 소공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의 쾌적한 이용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주민의 커뮤니티 기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녹음이 가능하고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벤치 등 공원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공간은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즐겁게 바라볼 수 있도록 계절별 초화류를 함께 식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자투리 공원형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 도입 시설과 공원의 기능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면적이 충분할 경우 필요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등의 기능을 함께 포함시킬 수 있다. 주민의 필요에 따라 주변에 공원·녹지가 존재하더라도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자투리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자투리 텃밭형

자투리 텃밭은 대상 자투리 공간 주변에 공원·녹지가 존재하여 공원의 기능은 크게 필요치 않은 입지 조건으로서, 도로와 도로로 고립되지 않은 지역 중 특히 건물과 인접한 위치에 적합한 녹화전략이다. 면적이 넓을수록 조성에 유리하겠지만, 건물에 인접한 경우 해당 건물 거주자가 직접 자투리 텃밭을 관리하도록 하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도록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형태가 가장형인 경우에는 계절별로 다양한 채소류를 식재함으로써 화단과 같은 심미적 기능도 함께 부여할 수 있다.

4) 자투리 경관조성형

대상 자투리 공간 면적을 30m² 이상 확보할 수 있으며 도로와 도로로 고립되어 있는 등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할 때 접근이 불량한 지역인 경우 자투리 경관조성형 녹화전략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지만 도로에 그대로 노출된 공간으로서 심미적인 경관녹지를 조성할 경우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효과가 높은 지역이다. 교통섬 등 시각적으로 집중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종으로 다층식재하여 풍부한 녹색과 화려한 초화류를 함께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

5) 자투리 비오톱조성형

자투리 비오톱은 도로와 도로로 고립되지 않고, 대상 자투리 공간 주변의 공원·녹지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의 환경·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기능을 함께 부여하고자 하는 지역에 적용 가능하다. 주변에 산림, 하천 등 생태계 보존 상태가 우수한 지역이 존재한다면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더 쉽게 볼 수 있겠지만, 주변에 소생태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동성이 좋은 곤충류 및 조류를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을 유도하기 위해 초화류 등 밀원식물을 식재하고 다층식재 소재로

열매가 열리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작은 연못을 조성할 경우 비오톱의 생물종 다양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자투리 비오톱의 환경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LID(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하여 빗물의 토양 침투를 유도하고, 연못과 우수저장시설을 병행하여 비오톱의 관수에 인위적인 에너지가 소요되지 않도록 환경교육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지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할 경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체험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자투리 주차장조성형

자투리 주차장은 대상지 면적이 10m² 이상 확보될 수 있는 사각형 공간으로서, 주택가에 위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인 경우 제안되는 녹화 형태이다. 단순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럭을 활용하여 우수침투를 유도하고 주차장을 중심으로 가장자리에 초화류와 관목류를 식재하여 경관적으로도 우수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면적이 확보되는 지역에서는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 녹음 제공이 가능한 교목을 함께 식재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동형 벤치 등을 도입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7) 자투리 화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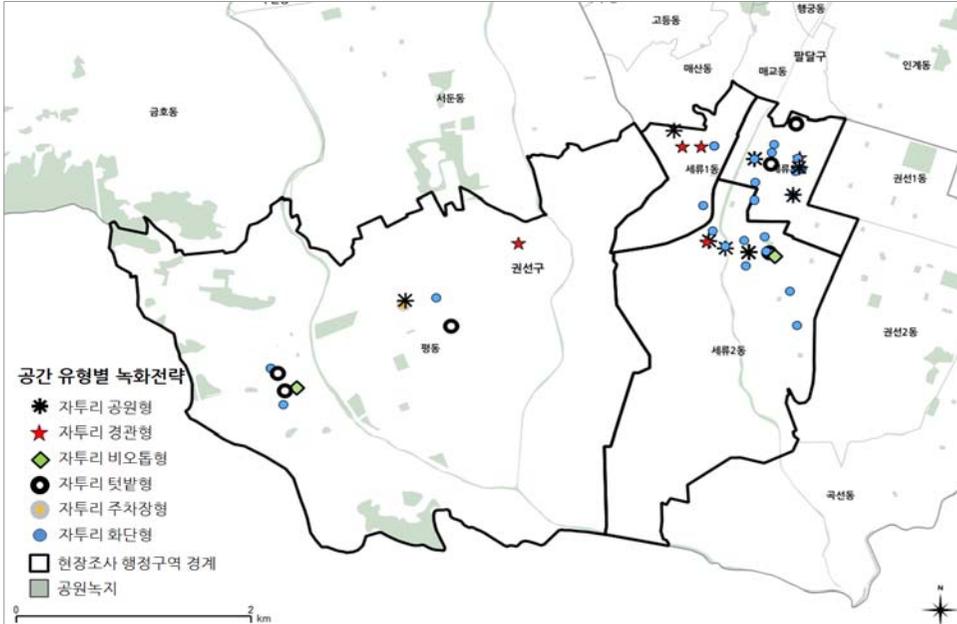
대상 자투리 공간이 도로와 인도, 도로와 건물, 인도와 건물에 접해 있을 경우 면적, 형태, 입지 등과 상관없이 자투리 화단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도로와 인도가 만나는 지역은 보차분리 시설로 플랜트 등을 이용한 자투리 화단 도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자투리 공간에 화단이 많이 조성되는 상황이지만 자투리 공간의 위치에 따라 자투리 화단의 기능을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다. 도로와 인도 사이에 위치한 자투리 공간은 보차분리가 가능한 물리적 경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 건물 사이의 자투리 공간에서는 화단을 가로수 등과 연계한 다층적 보행 경관을 유도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자투리 화단은 가장형으로 도로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지역에 LID 기법을 적용하여 도시의 빗물을 침투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자투리 화단형 녹화는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의 심미적 기능을 고려하여 계절별로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성 방법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에도 쾌적하게 관리된 녹색 화단을 위해 다양한 식물 소재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8) 공간별 녹화방안

(1) 대상지 공간별 녹화방안

본 연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총 50개 자투리 공간을 대상으로 현재의 이용현황과 분석한 유형을 토대로 공간별 녹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자투리 공원형 11개소, 자투리 텃밭형 6개소, 자투리 경관조성형 5개소, 자투리 비오뜰조성형 2개소, 자투리 주차장조성형 1개소, 자투리 화단형 25개소가 제안될 수 있다.



〈그림 4-21〉 공간 유형별 녹화전략 제시(안)

(2) 녹화사업 우선검토 대상지

현장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상지의 물리적 상태 및 활용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녹화사업 우선검토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대상지가 초화류를 이용하여 화단을 조성한 경우가 많아 현장조사 시점에서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서 관리상태가 불량하거나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 공간을 대상으로 녹화사업 우선검토 대상지 5곳을 선정하고 녹화 전략을 고찰하였다.

① 권선구 세류2동 566-4

세류2동 566-4번지는 15m²의 좁은 면적으로 도로와 도로에 접한 곳에 위치한 부정형의 자투리 공간이다. 이삿짐센터 진입부에 위치하여 차량 출입이 잦고 접해있는 건축물의 형태, 표면부 처리 상황, 위치, 형상 등이 화단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므로 플랜터 화분을 이용한 자투리 공간이 가꾸어져 있다. 하지만 사업 이후에도 여전히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고 자투리 공간 녹화가 전혀 가지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4-22〉 세류2동 566-4 대상지 현황(2013. 11. 25)

이 지역은 부지가 협소하므로 대상지에 플랜터나 상자 텃밭 등을 적용하여 녹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건물주의 동의를 통해 벽면 녹화를 추진한다면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대상지라 판단된다.

② 권선구 세류2동 1021-4 한주아파트 뒤편

세류2동 1021-4번지에 위치한 한주아파트 뒤편의 공간은 15㎡의 좁은 면적으로 플랜터 박스를 이용하여 자투리 화단을 설치한 상태이다. 하지만 현장조사 당시 쓰레기 적치가 심각한 상태로 확인되어 대상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아파트 담벼락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주민의 이동량은 적지만 주택가와 인접한 공간이므로 기존의 플랜터 이외에 상자 텃밭이나 이동식 플랜터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녹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 외에도 벽면과 플랜터를 모두 활용한다면 경관적인 면에서의 자투리 공간 녹지 조성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이곳은 인근 주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이와 병행하여 화단을 조성하거나 벽면을 녹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림 4-23〉 세류2동 1021-4 대상지 현황(2013. 11. 25)

③ 권선구 세류3동 142-4

세류3동 142-4번지의 경우 주거지역의 도로와 도로에 접한 곳으로 15㎡의 좁은 공간이다. 이곳은 쓰레기 적치가 심한 곳이어서 무단 쓰레기 정비를 하고 객토작업을 통해 화단 조성을 하였지만 사업시행 후에도 여전히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었고 화단 조성의 흔적을 찾기가 힘들었다. 이 경우에도 화단 조성 뿐 아니라 화살나무나 흰말채나무 등 겨울에도 수피가 아름다운 수종을 식재한다면 사계절 내내 경관적 효과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는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무나 배추, 상추 등과 같은 사람들이 키우기 쉬운 텃밭

으로 조성한다면 지속적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4-24〉 세류3동 142-4 대상지 현황(2013. 11. 26)

④ 권선구 세류동 264-16 옆

세류동 264-16번지 옆에 위치한 자투리 공간은 2010년에 촬영한 근경 사진으로 봤을 때 건물 신축예정부지였다(<http://map.daum.net/>). 이곳은 건물이 들어선 후에 생긴 자투리 공간으로 64m² 정도로 면적이 넓은 편에 속한다.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과 도로에 접한 곳이며 다른 대상지에 비해 위요한 자투리 공간이므로 주민들을 위한 화단 겸 쉼터를 조성하여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경기 농림 진흥 재단에서 추진 중인 녹지 조성사업과도 연계시켜 시멘트벽을 허물고 꽃과 나무를 심어 공원화 및 쉼터를 조성할 수 있다.



〈그림 4-25〉 세류동 264-16 옆 대상지 현황(2013. 11. 26)

⑤ 권선구 세류3동 838-2번지

세류3동 838-2번지에 위치한 자투리 공간은 도로와 도로 사이에 섬처럼 존재하는 곳으로 완경사에 64㎡ 면적으로 비교적 넓은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곳은 개인소유의 공간이나, 사업을 통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한 후 평탄작업을 통해 국화, 메리골드를 심고 주민화단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초화류 위주로 자투리 공간을 녹화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성 초기의 잘 가꾸어진 모습을 찾기는 힘들었다. 이 대상지는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화단과 함께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한다면 더욱 더 관리가 쉬운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4-26〉 세류3동 838-2번지 대상지 현황(2013. 11. 26)

2. 녹화사업 추진 방안

1) 사례를 통한 녹화사업 추진 방안

사례별 녹화사업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시행주체는 크게 지자체, 시민단체, 공기업이 있고, 대체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추진방안은 공간을 미리 선정하고 진행하는 방식과 공간 선정에서부터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표 4-3〉 사례별 추진방안

사례명	시행	기간	추진방안
도시 생생 프로젝트	서울시	한시적 (부분적 지속성 가짐)	녹화 대상지 공모 (시민 → 서울시) 공간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시민 → 서울시) 72시간동안 설계 및 시공(참여자) 우수작 시상 및 지속여부 결정 (시민-서울시)
서울시 한뼘 동네 공원	서울시	지속적	공원소외지역 발굴(주민) 우선순위 결정 및 대상지 선정 (위원회) 공공공지로 지정 및 조성(서울시) 자율적 관리(주민 운영위원회)
한평공원 조성사업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신한은행)	지속적	1. 자투리 공간 선정(도시연대) 2. 주민참여프로그램 진행 (도시연대-주민) 3. 주민 참여를 통한 디자인 결정 (도시연대-주민) 4. 시공(도시연대-주민) 5. 이용 및 관리(주민)
휴메트로 커뮤니티 1004 파크	부산교통공사, 부산그린트러스트	지속적	도시철도 1,004곳 선정(부산교통공사) 설계공모전(전국 대학 및 대학원생) 쌈지공원 실시설계 자문 및 시민의견수렴 (부산그린트러스트) 시공 및 관리(부산교통공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구체적인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공모 받아 조성 이후 관리까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민단체와 공기업은 공간을 미리 선정하고 진행하는 점에서 유사했으나, 시민단체는 버려지거나 효용이 크게 떨어지는 곳을 우선적으로 찾고, 다양한 방법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방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역사회의 버려진 공간의 재생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도 살아나게끔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녹화사업을 추진하되,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버려진 자투리 공간을 살리기 위한 단·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투리 공간 활용 프로젝트 도입을 제안한다. 기존에 조사된 50여 개의 자투리 공간을 대상으로 시민, 전문가,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유형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이다.

1. 선정된 50여 개의 자투리 공간을 공개(수원시 → 시민)
2. 공간별 시민의견 수렴 및 참여자 모집(참여자 - 시민)
3. 참여자 및 대상지 선정 : 유형별로 2곳 정도(대상지별 참여자선정)
4. 정해진 시간동안 설계 및 시공(참여자)
5. 우수작 시상 : 작품의 지속가능성 및 활용 여부(시민 →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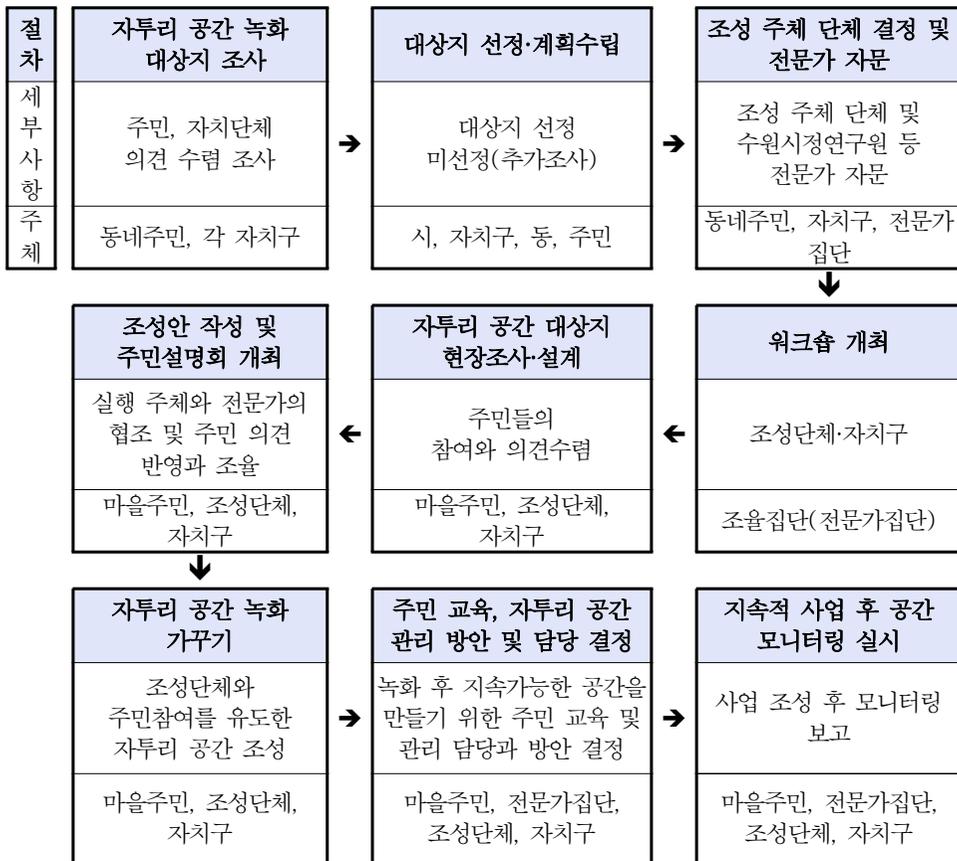
단발적이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버려지는 자투리 공간을 줄어나갈 수 있으며, 유형별로 다양하고 실용적인 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얻어 수원형 자투리 공간 활용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변화를 원하는 자투리 공간을 시민들로부터 추천받고, 계획에서부터 시공·관리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방법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자투리 공간이 주민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단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민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써 조그마한 자투리 공간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가 살아나고 지속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자투리 공간 공모(시민 → 수원시)
2. 현장조사 및 결과보고(시민단체 → 수원시)
3. 유형별 활용계획 수립(시민 - 시민단체 - 수원시)

4. 예산 배정(수원시 → 시민단체 - 주민공동체)
5. 자투리 공간 조성(시민단체 - 주민공동체)
6. 지속관리(주민공동체)

지역기업과의 연계는 재정적·관리적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자투리 공간조차도 부족한 곳에서는 서울시의 녹지 활용계약처럼 일정 부분 사유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7〉 수원시 자투리 공간 녹화 추진 방안

2) 자투리 공간 유형별 사업 지원방안

앞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자투리 공간 유형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자투리 공원은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사업, 수원 마을르네상스, 도시연대의 한뼀공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투리 텃밭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추진 중인 수원시 도시농업 맞춤형 텃밭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자투리 경관조성 사업은 경기 농림 진흥 재단의 벽면녹화 사업, 또는 수원시의 자체적인 경관개선사업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자투리 비오톱은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비오톱은 LID 기법이 적용 가능한 대부분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데,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상자 속 텃밭 사업, 경기 농림 진흥 재단의 담장 허물기 사업,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녹지 활용 계약 및 녹화계약 등이 적용 가능한 사업이다. 자투리 주차장은 수원시에서 추진 중인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그린 파킹마을 사업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도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자투리 화단은 수원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을 비롯하여 수원시 및 구청, 동별 추진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 4-4〉 자투리 공간 유형별 사업 지원방안

공간유형별 녹화전략	사업명	주체	지원내용
자투리 공원형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사업	경기도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조례 : 도비 일부 (30%)를 배정받은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70%) 예산을 편성해 추진
	수원 마을 르네상스	수원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을 목적으로 하여 비용 500만원~1억원을 지원
	한뼀공원	도시연대	도시연대가 기업의 지원을 받아 주민참여로 만드는 작은 공원으로 조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함

공간유형별 녹화전략	사업명	주체	지원내용
자투리 텃밭형	수원시 도시농업 맞춤형 텃밭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자연을 통한 학습활동으로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맞춤형 텃밭 프로그램운영
자투리 경관조성형	벽면녹화	경기 농림 진흥 재단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건축물을 신청 받고 녹화여건, 건축주의 녹화 의지 등 조사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제공
자투리 비오톱 조성형	상자 속 텃밭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도심 속 녹색 텃밭 공간 조성으로 도시농업 확대와 시민참여유도위해 보금
	담장 허물기	경기 농림 진흥 재단	공공성과 입지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해 30%에서 최고 70%까지 사업비를 지원
	녹지 활용 계약	수원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입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입상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
	녹화계약	수원시	의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
자투리 주차장 조성형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수원시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단독주택의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고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
	그린과깡마을	수원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확대시킨 것으로 이면도로 일부 또는 전체 구간에 대하여 단독주택 등의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여유 공간에는 조경을 식재하는 등의 공사비 일체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거주자우선 주차제	수원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 정비하여 인근 거주민에게 유료로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
자투리 화단형	수원시 우리 동네 만들기	수원시	자투리땅과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의 공간지에 화단을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3. 지속가능한 자투리 공간 관리

1) 시민 주도형 자투리 공간 관리 방안

원서동 ‘빨래골 쉼터’는 1960년대에는 공동우물, 1990년대에는 방범초소였던 공간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쓰레기 적치장 등으로 방치되었으나, 2002년 도시연대가 대상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여 공원으로 조성된 사례이다. 공원을 조성하기에 앞서 주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서로 토론하면서 공원 계획 및 설계를 진행하였다. 면담, 마을탐방프로그램 진행, 설문조사 등 의견공유 단계를 거쳐 설계 및 조성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연대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시유지인 대상지 개선에 대한 행정 동의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개별 면담, 어린이의 마을 탐방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상지의 소공원 개선에 대한 필요성, 개선 방향 등 주민 의견을 수용하였다.



〈그림 4-28〉 한평공원 1호 원서동 빨래골 쉼터(라펜트 <http://www.lafent.com>)

이러한 한평공원 사업은 초기에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진행하였지만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초기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참여시킴으로써 관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한 사례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자투리 공간 관리의 핵심은 주민이 자투리 공간 조성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도심 자투리 공간은 골목가꾸기, 주택의 옥상, 벽면 녹화, 담장녹화, 담장 허물기 후 녹화 등과 같이 그 대상지가 매우 다양하며,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만

큼 주민이 스스로 주도하여 녹화를 추진하기에 적합하다는 특성이 있다. 행정에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고 다양한 전문가, 단체를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즉, 자발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녹지를 조성, 관리하며 행정은 녹화에 필요한 수목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를 이루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투리 공간을 대상으로 녹화 경진대회나 이벤트 등을 주도하여 주민이 직접 주변환경 변화를 느끼도록 함으로써 자투리 공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관심은 자투리 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장기적인 지역 관리의 핵심은 지역 주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기 추진된 「우리 동네 만들기」와 같은 자투리 공간 조성 사업은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제한,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녹화 계획 추진으로 화단 위주로 자투리 공간이 녹화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성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해당 공간에 다시 쓰레기가 적치되고 훼손된 후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성 전 과정에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불편사항 건의, 자투리 공간 조사, 자투리 공간 공모 사업, 조성,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민들이 자투리 공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자투리 공간의 관리를 위해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가드너 소양 교육과 같은 교육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이해당사자들 간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수원시는 「시민 조경가드너 양성교육」을 통해 조경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실무 능력을 갖춘 시민 봉사자를 육성하여 시민주도 공원·녹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도 총 66명의 시민 조경가드너가 양성되었으며 이 사업은 수원시에서 지속적으로 추

진할 예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공원사랑시민단」 운영을 통해 시민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수원 시민이 모두 마을의 조경가가 된다는 것을 목표로 수원시 공원·녹지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공원·녹지 조성·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2) 저관리형 공간 조성

자투리 공간의 특성상 일반적인 공원에서와같이 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투입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저관리형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첫째, 대표적인 저관리형 공간 조성 기법은 옥상녹화 등과 같이 척박한 식생 기반에서 생육이 가능한 식재방식을 도입하여 자투리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도심에 분포하고 있는 자투리 공간 중 많은 지역이 실제로 인공지반³⁾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일반 지면과는 단절된 공간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인공토양 또는 개량토양을 사용하여 식재기반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반 녹화는 옥상녹화를 기준으로 토심과 하중, 식재 유형 등에 따라 경량형, 혼합형, 중량형으로 구분되지만, 자투리 공간에서는 대부분 플린터 중심의 식재기반이 조성되므로 이러한 구분이 큰 의미는 없다. 다만, 녹화 대상지의 규모, 도입 수중에 따라 토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본류 위주의 식재를 원하는 경우에는 토심 20cm 이하의 플랜터로도 식재가 가능하며 도입 수중은 대상지의 미기후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여름철을 제외한 시기의 강수량이 부족하므로 건조한 환경에서 생육 가능한 지피식물을 중심으로 식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공지반에 녹화하는 경우에는 경관조성을 위해 잎가 가지가 조밀한 특징이 있는 초화류가 적합하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린초, 섬기린초, 바위채송화, 돌나물, 바위솔,

3) 인공지반이란 자연지반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자연적인 지반상태와 유사한 재료적, 형태적 여건을 조성하여 인간의 적극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공간임(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홈페이지: <http://www.ecoearth.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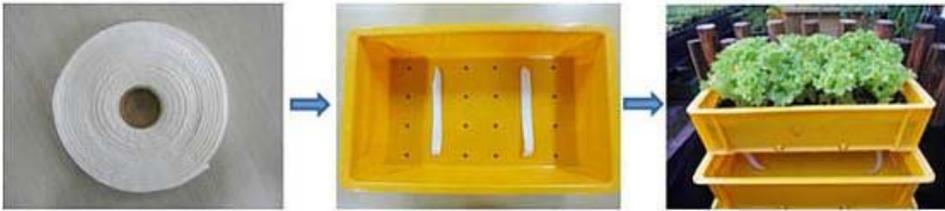
별개미취, 제주양지꽃, 층꽃나무, 종지나물 등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식재기반 토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지의 경관 형성기능을 함께 생각하여 적합한 수종과 플랜터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식생과 토양기반 이외에도 저관리형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관수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방식은 LID 기법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하다.

둘째, 자투리 공간에서 생산되는 식물이 지역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될 경우 해당 공간은 주민에 의해 잘 관리될 수 있다. 대상지 면적이 협소한 경우라도 플랜터를 이용하여 상자텃밭을 조성하는 형태로 텃밭 기능의 도입이 가능하다. 2012년 부산 산복도로 지역 내 폐·공가가 철거된 공간에 이동식 상자 텃밭을 설치해 공동경작을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심지 내 쌈지 공원 및 자연생태체험 학습장의 기능 획득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초량 6동 10지구에 산복도로 텃밭 공동체 제 1호인 희망농장에는 겨울철엔 추위에 강한 양배추를 파종하고 봄에는 상추나 고추 등의 모종을 심는다. 또 텃밭에는 의자 겸용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텃밭 음악회 등 문화 공간 및 도심지 쌈지공원, 청소년 생태자연학습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상자 텃밭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버려진 자투리 공간이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투리 공간 녹화 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으며, 이 생산물은 독거노인 등 사회적 배려자에게 제공되어 사회적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행정에서는 주민에게 쌈 채소류 등 수확 가능한 작물 모종과 상자 텃밭을 보급하여 이 공간을 지역중심 공동체로 육성하는 전략 연계도 가능하다.

농진청에서는 2008년부터 도심에 비어있는 옥상을 이용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옥상농원 조성연구를 수행해 누구나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추천하고 옥상텃밭 조성기술, 재배기술 등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재배작물로는 초보자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상추, 케일, 잎들깨, 부추, 고추, 방울토마토, 가지, 주키니호박, 고구마 등으로 농진청에서 특허출원한 심지관수⁴⁾형 재배상

4) 심지관수는 화분 위에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형질)의 모세관 작용을 이용해 화분 아래쪽에서 흙 속으로 수분을 공급시키는 저면관수 방식을 의미함(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

자를 실용화하여 손쉽게 재배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심지관수형 재배상자는 재배자가 오랜 기간 집을 비울 때 물이 공급되지 않아도 식물이 마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모듈식으로 상자를 연결하여 대규모 교육농원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실내의 공통으로 모두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는 도시공간을 농업활동을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그림 4-29〉 심지관수 저관리형 화분 사례(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심지관수 방식의 재배상자는 가정에서 일반 화분이나 재활용 스티로폼 상자, 플라스틱 상자를 이용해 쉽게 만들 수 있다. 단, 용기를 2개 준비해야 하는데 채소를 심을 용기와 물을 담아둘 용기가 필요하다. 우선 심지역할을 할 부직포나 도톰한 천을 화분 바닥 배수구멍에 끼워 바닥 밑으로 길게 늘어트린 후 화분에 배양토를 담고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으면 된다. 준비해둔 또 다른 용기에 물을 채우고 모종을 심은 화분 하단에 놓아두면 뺏어 나온 심지를 타고 물이 흡수로 흡수되게 된다. 단, 화분이 물에 직접 닿으면 과습해지기 때문에 용기에 물을 채울 때는 위 화분에 닿지 않을 정도로 채운다. 물을 위에서 주는 것이 아니기에 배수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와 지지분해될 우려도 없고 과습하거나 건조해서 식물이 죽게 될 염려도 없다. 즉, 심지가 식물이 잘 자랄 정도로 적정하게 물을 공급해 준다. 상추, 썩갯이나, 청경채, 비타민다채, 아욱 등이 화분에 잘 자랄 수 있는 채소이므로 도입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대상지 앞에 높은 건물이 있거나 남향이 아니어서 햇빛양이 적은 곳에서는 상추가 잘 안자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부추나 파, 엔다이브, 치커리, 생강, 신선초가 적합하다(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경기도농업기술원 도시농업팀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텃밭

농사달력을 제작하여 1~2평과 같은 소규모 공간, 3~5평과 같은 중규모, 6~10 평과 같은 대규모로 구분하여 가꿀 수 있는 작물 종류와 시기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림 4-30〉 2013년 텃밭농사달력(경기도농업기술원, 2012)

셋째, 겨울철과 같이 식물의 생육이 어려운 경우에도 경관형성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설계, 조경설계적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보리 등과 같은 내한성 초본류 이외에도 흰말채나무 등과 같이 독특한 색감, 질감을 보유한 수종을 식재함으로써 다양한 경관조성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흰말채나무는 보통 다 자라면 수고 2m, 수관폭이 2m에 달하며 지면의 가까운 곳에서 다수의 줄기가 자라는 다간형의 중소형 관목이다. 흰말채나무는 내한성이 강하고 내성이 뛰어나며 겨울철에 가지가 특히 아름답고 토양도 가리지 않아 특별히 관리가 필요 없다. 원줄기는 암적색으로 굵어지면서 적갈색이 되며 당년에 잘 자란 가지는 겨울에 선홍색으로 특히 두드러진다. 또한,

열매는 새의 먹이로도 이용되어 야생조류 유도에도 유용하다. 그 밖에 겨울철에 나무열매가 오랫동안 남아있어 경관적·생태적으로 유용한 식물로는 찔레나무, 팔배나무, 산수유나무 등이 있으며 수피 색깔 및 질감이 독특하여 경관 형성 기능이 있는 수종으로는 녹색 수피를 지닌 황매화, 백색 수피를 지닌 자작나무, 화살 깃 모양의 화살나무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사철나무, 반송, 주목 등과 같은 상록수를 식재하는 것도 경관 형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수종을 발굴하여 자투리 공간 녹화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계획, 시공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리에 용이할 것이라 판단된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원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주목받는 것이 도심에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 공간이며, 이 공간의 공원·녹지로의 활용이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공원·녹지 서비스 분석을 통해 공원·녹지 소외지역을 파악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자투리 공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 수원시에 분포하고 있는 공원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시민들이 공원과 유사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림 녹지, 하천 녹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 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공원·녹지 서비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원·녹지 250m 권역의 서비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원시 전체의 약 19.2%가 서비스 소외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외지역의 토지피복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구 중에서는 권선구, 동 중에서는 정자1동, 고등동, 매산동, 평동,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매탄3동, 태장동이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서비스 소외지역인 권선구의 4개 동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자투리 공간을 파악하고 50개 대상지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였다. 수원시에 존재하는 자투리 공간은 면적 10㎡~3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로-건물 사이에 위치한 자투리 공간이 가장 많았으며 형상은 가장형과 삼각형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투리 공간 대부분이 현재 화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유형과는 크게 상관없이 획일적인 이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자투리 공간 녹화사례를 통해 수원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녹화전략을 도출하였다. 한평공원, 도시 생생 프로젝트, 서울시 생활 공원, 서울시 한뼘 동네 공원, 휴메트로 커뮤니티 파크,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성당 등의 사례를 통해 최근 자투리 공간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공원 정책의 흐름 중 하나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민과 기업, 행정, 시민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녹화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소공원 조성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타 사업들이 겪었던 과정이라 판단되나, 수원시에서는 다양한 자투리 공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총 6개의 녹화유형(자투리 공원형, 텃밭형, 경관조성형, 비오톱조성형, 주차장조성형, 화단형)을 제시하였다.

넷째, 제안된 자투리 공간 녹화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원시 자투리 공간 녹화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유형별 사업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원시에서는 시민들과 진행할 수 있는 녹화사업을 추진하되,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투리 공간 활용 프로젝트”, “자투리 공간 공모 사업”과 같은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사업의 지속성은 지속적인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관리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투리 공간 녹화사업은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르네상스⁵⁾ 사업, 마을계획단 등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은 마을르네상스 사업과 동일한 대상지를 공유하지만 사업 성격, 주체 등이 달라 계획, 관리 등에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마을르네상스 사업과 결합하여 마을 내 존재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간, 초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을 직접 찾아내는 것부터, 발견된 자투리 공간을 계획, 시공, 관리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5) 주민이 사는 마을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문화, 건축,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가꾸어나가는 시민 공동체 운동(<http://www.maeulcenter.or.kr/>)

있도록 기존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제2절 제언

2013년 수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도시의 날 위원회가 주관하는 도시의 날 행사에서 도시대상 부분 대통령상에 선정되었다. 도시대상은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1년 동안 도시공간의 질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한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수원시는 도시대상 평가에서 수원역 등 주요 거점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골목 만들기, 주민경관협정 시범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자투리 공간의 쌈지공원화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곧 수원시 삶의 질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삶의 질이라는 용어는 삶의 조건을 경제 지표로 파악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 ‘전체 사회적 특성’과도 연결되며 복지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와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삶의 질을 도시환경 측면에서 본다면 거주성(livability)과 환경의 질(environmental quality)로 분류할 수 있다. 거주성은 정주성(habitability)과 같은 의미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의 평가라고 볼 수 있고, 환경의 질은 특정 지역의 자연, 오픈스페이스, 자연자원 등 자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프라, 인공 환경, 물리적 쾌적성 등 다양한 기타 요소들의 조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삶의 질의 한 영역으로 도시녹지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URGE(2004)는 도시녹지공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도시의 공공영역과 사족영역의 오픈스페이스이며 우선적으로 녹화되어 있고 직접적(활동 또는 소극적인 여가) 또는 간접적(도시환경에 긍정적 영향)으로 이용자들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도시지역과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녹지 개선과 정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도시녹지공간은 시민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심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의 확보는 장기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에 따른 삶의 질 변화 연구는 수원시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연구라 판단된다.

수원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도심 쇠퇴와 재생이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근린주구 재생(neighbourhood renewal), 커뮤니티 재생, 지역사회 재생, 주거지 재생 등으로 불리는 근린재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중요하므로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춰 커뮤니티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쇠퇴지역을 재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로 물리적 개발방식을 채택하였던 여러 정책들은 실제 그 장소에 거주하는 도심 주민들을 배제한 채,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재생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커뮤니티 재생과 근린주구 재생에는 물리적 개발과 동시에 이웃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기능을 하는 근린 사회를 위한 사회 프로그램들도 고려되어야 한다(이소영, 2012). 자투리 공간 녹화전략이 자연스럽게 도시 재생 정책과 융합될 수 있도록 관련된 사업과의 연계 전략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

자투리 공간의 증가는 도시 쇠퇴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투리 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도시 전략은 도시 재생을 위한 첫 단계일 수 있다. 고려해 볼 점은 자투리 공간은 물리적 공간으로 존재하지만 형성된 원인, 현재의 토지이용, 입지 특성 등 공간적 성격 등이 상이한 입체적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생(再生)”이라는 용어를 끌어들이어 “자투리 공간 재생”을 위한 정책 및 연구 방향을 몇 가지로 제안해 볼 수 있다. 첫

째, 자투리 공간의 형성과 입지 특성을 시간에 따른 도시의 쇠퇴 현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자투리 공간이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일시적 현상인지, 도시 쇠퇴의 흐름 중 어느 단계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조성 전략이 차별화될 수 있다. 둘째, 자투리 공간 특성을 세분화하여 정량적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녹화전략과 연계시켜야 한다. 자투리 공간에 대한 객관화된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유형화하고 녹화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정책화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셋째, 녹화사업에 따른 효과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자투리 공간은 도시 재생에서 여러 의미를 지닌다. 공동체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통해 커뮤니티 재생을 가능하게 하며, 외부 유인 요인 제공을 통한 경제적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비오톱 조성, LID 기법 적용을 통한 자연 공간 조성은 도시의 환경·생태적 재생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 효과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수원시 자투리 공간 녹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여 좀 더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투리 공간 녹화를 위한 설치기준, 관련 사업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시민의 사업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어린이, 청소년 환경교육에 특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자투리 공간의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좋은 환경과 공간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이라는 점을 시민과 행정 등 도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경기도농업기술원. 2013. 텃밭농사달력.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2010. 지속가능한 녹색 도시공동체를 위한 도시재생기술. 도시재생사업단 연구성과집.
- 김광중, 한혜승, 김남선. 1997. 도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녹지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미나. 2008. 경계 특성에 의한 자투리 공간의 디자인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진. 2009.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의와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21(9) : 184-206
- 김원주. 2007. 10. 29.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공원 녹지 조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토론회 자료집.
- 김정규, 김유일. 2012. 도시공원·녹지 접근성 모델에 관한 연구 - 공간구문론과 심리적 모델의 통합 -. 2012년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김지영, 유진형, 김철중. 2013. 도시재생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희공간의 활성화 방향 연구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8(1) : 75-83.
- 문형섭. 2003. 도시 내 자투리땅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찬홍, 백나영. 2002. 도시공간의 유희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내의 유희공간을 중심으로. 디자인포럼21 5 : 163-195
- 방경식. 2011.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 배민기. 2013. 지리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로서의 도시공원 입지 특성 평가 - 충북 청주시를 대상으로 -. 환경영향평가 22(3) : 231-240.
- 배민기, 김유리. 2013. 도시공원 서비스의 형평성 평가를 고려한 도시공원 확충방안: 충북 청주시를 대상으로. 국토연구 77 : 49-66.

- 백나영. 2002. 도시공간의 유희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현찬. 1998. 경기도 도시공원의 시민접근성 비교와 향상방안. 경기연구 3 : 63-94.
- 성현찬, 신지영. 2015. 도시공원의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 - 경기도 권역을 중심으로 -. 한국조경학회지 33(2) : 83-91.
- 송원경. 2013. 7. 8. 수원시 공원·녹지 진단. 다산통신. 수원시정연구원.
- 송인주. 2013. 10. 28. 서울시의 민간기여 공원녹지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53.
- 수원발전연구원. 2012. 수원시 구도심 유희공간 활용방안.
- 수원시. 2012. 2020년 수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 수원시. 2013. 2013 수원 마을계획단 구별 최종보고서.
- 신지영. 2009. 도시공원 분포의 형평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2(2) : 40-49.
- 안동만, 최형석, 김인호, 조형준. 1991.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접근성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8(4) : 17-28.
- 여운상, 오동하, 김영하. 2009. 국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원 조성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오규식, 정승현. 2005. GIS 분석에 의한 도시공원 분포의 적정성 평가. 국토계획 40(3) : 189-203.
- 오준걸, 김광현. 2011. 유희 입체공간의 개념과 '공간재생' 계획특성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7) : 87-95
- 이상민, 엄운진. 2011.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AURI-기본-2011-3 : 165.
- 이상일. 1999. 기능지역의 설정과 공간단위 수정가능성의 문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7(2) : 757-783.
- 이상준. 2009. 유희공간 활용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태안전통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도시설계학회지 10(2) : 125-138

- 이소영. 2012. 근린재생이란 무엇인가?. 걷고싶은 도시 0506 : 6-10.
- 이재영, 김태경. 2011. 공원부족구역 분석을 통한 도시공원 확충방안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9(3) : 1-9.
- 임유경, 임현성. 2012.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기본-2012-3 : 322.
- 정지호. 2011.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 사례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경진. 2010. 11. 17. 도시의 공원, 경계와 매개의 수평공간. 한국조경학회 도시공원국제심포지엄. 서울 코엑스.
- 홍일영. 2013. 오토캠핑장의 공간분포와 공간접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1) : 65-74.
- 환경과 조경. 2013. 12. N308. 환경과 조경 ela.
- Barnett, Jonathan. 1974. Urban Design as Public Policy : Practical Methods for Improving Cities. Architectural Record Books
- Barnett, Jonathan. 2003. Redesigning Cities : Principles, Practice, Implementation.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 Higgs, G. 2004. A literature review of the use of GIS-based measures of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s, Health Services and Outcome Research Methodology 5 : 125-145.
- Pagano, Michael A. and Ann O'M. Bowman. 2000. Vacant Land in Cities : An Urban Resource. Brookings Institution Survey Series.
- Perera, R.L.A.S. 1994. Accommodating Informal Sector Enterprises in the Urban Built-Environment.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HSD Monograph No.36 : 140
- The Trust for Public Land. 2006. The Benefits of Parks: Why America Needs More City Parks and Open Space.
- Trancik Roger. 1986. Finding lost space : Theories of Urban Design.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URGE-Team. 2004. Making Greener Cities - A practical guide. UFZ
Centre for Environmental Research : 119.

홈페이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 <http://www.dosi.or.kr/>

농촌진흥청 : <http://www.rda.go.kr/>

라펜트 : <http://www.lafent.com/>

마을르네상스 : <http://www.maeulcenter.or.kr/>

서울 하이뉴스 : <http://m.inews.seoul.go.kr/>

서울의 공원 : <http://parks.seoul.go.kr/park/>

수원시 : <http://www.suwon.go.kr/>

e-수원뉴스 : <http://news.suwon.ne.kr/>

The Trust for Public Land : <http://www.tpl.org/>

영문요약(Abstract)

Suwon city has the highest level of park service in Gyeonggi-do, despite of lacking the natural environments including forests,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However, it needs to get a long-term response strategies in some areas, where are the proportion of park services are l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ark service in the city by making mini-lot, as small scale public plots, to type of parks and green spaces.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underserved areas of parks and greenery services in Suwon city, and studied the use of the spa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underserved areas in Suwon city are approximately 19.2%, especially 4 dong in Gwonseon-gu are the most vulnerable areas. Second, 50 mini-lots in the non-serviced districts are average 10~30 m². They are located between road and building and have long and triangular shaped in most. Currently, they are used in flower bed regardless of the type. Third, we suggested 6 greenery strategies (park, vegetable garden, landscape, biotope, parking lot, and flower bed) that could be applied in Suwon city through case study of small scale public plots. It is important to link organically among the business, administrative and civil society for sustainable project. Finally, we proposed “mini-lot greenery strategy of Suwon city” for effective promotion of projects, and found supporting methods of greenery projects.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ed “mini-lot utilization project” and “competition for mini-lot improvement” as the greenery projects with local residents.

Keyword : Mini-lot, Park service, Public participation, Greenery strategy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투리 공간의 활용 방안

발행인 손혁재

발행일 2014년 2월 17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비매품 ISBN 979-11-952339-4-6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

